

# 소학생

· 11월치 ·



# “조선말 큰 사전”이 되기까지



사진 설명 ①교정 보시기에 바쁜 조선어 학회 선생님들. ②까맣다면 없어질만한 “조선말 큰 사전” 원고. 집에 후원 경찰서 따지가 붙어 있고 일부인이 찍혀 있다. ③원고에 의해서 판을 짜고, ④교정이 끝나면 인쇄가 시작된다. ⑤여자 직공들이 책을 때는 광경. ⑥이렇게 해서 책은 수평들의 손으로 들어 오게 된다.

— 차 례 —

- 종교 · 수필집 불멸 — 윤석영(20)
- 종교 · 교목교목 — 원래승(25)
- 소설 · 이 순천 강변 — 박대현(31)
- 소설 · 죽마방 — 이철 — 복각성(37)
- 풍화 · 향악의 향연 — 주요성(43)
- 풍화 · 남해의 아름다운 순화림(47)
- 번기 · 관우의 부인 — 강동희(51)

- 조선 공부 ————— (56)
- 그림 속담 ————— (57)
- 우리나라의 조가(정원진목)(58)
- 이현의 세속적 ————— (60)
- 조선말 큰 사립학교의사(61)
- 소학의 각종정 ————— (63)
- 경기도 교육 연합회 창립식(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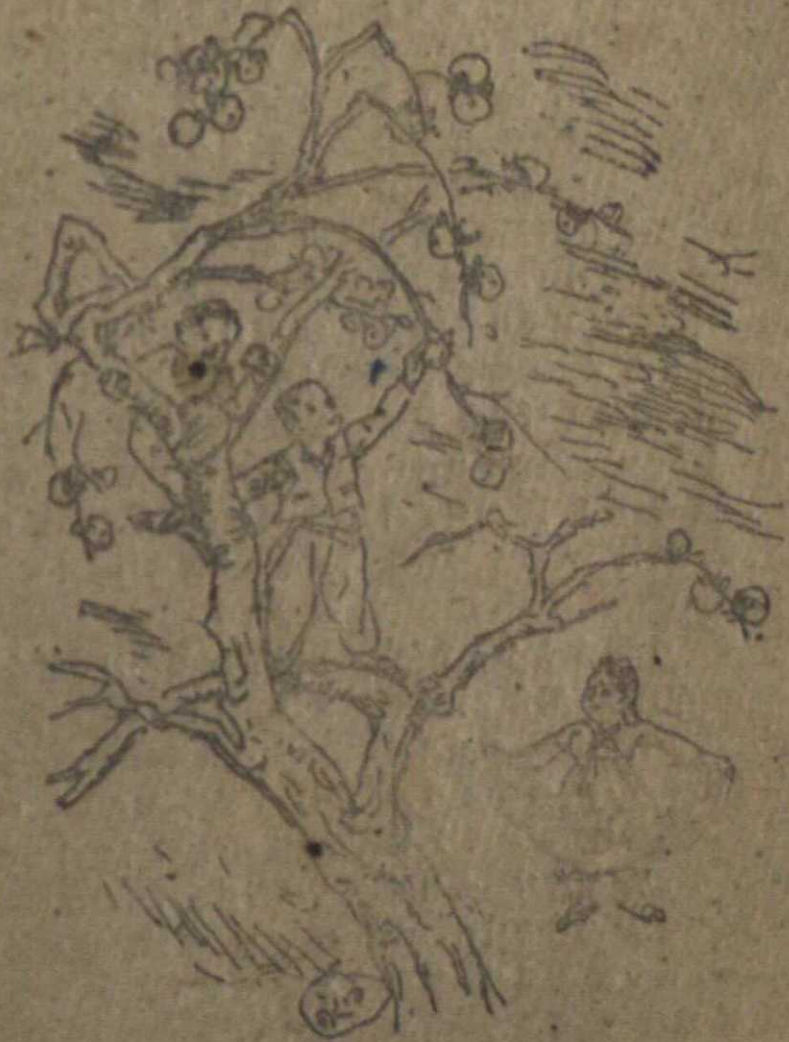
- ★순정부를 기념하여 시(65)
- ★원문 조식 ————— (67)
- ★조선의 신아리 ————— (68)
- ★의정각의 유산 ————— (71)
- ★의정각의 정경전(72)
- ★학원 이념 · 유산 문제(73)
- 명목자 삼파기 발표(74)

- 번화 · 국 풍의 ————— (75)
- 이제 할 일(76)
- 프로스틴의 시 문집(77)
- 프로스틴의 비평(78)
- 이 문의(79)
- 우순 경기 · 경주 시장(81)
- 의정 박사(82)
- 한말 박사(83)
- 소학의 구경부(84)
- 민물과 너치(85)

★ 그림 그리신 분 ★  
 김 현승 · 김 의환 · 조 병덕  
 김 기창 · 최 수철

# 소학성

★ 11 월 차 ★



(김 기창 · 그림)

# 동화 병아리 5남매

★ 주 오성 ★



어느 농가에 커이던 암탉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암탉은 물론 주둥이가 뾰족하고 살이 포동포동 쪼인 암탉인데, 그 털이 유난히도 반지르르하여 기름이 포르포르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봄날인데 틀 한 모퉁이에 쌓인 쪼터미를 팔로 살짝살짝 헤치면서, 하얗고 달콤한 구데기들을 잡아 쪼아 먹느라니까, 옆 집 수탉이 어디로서인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데기가 맛이 있소?” 하고 그 수탉이 말을 건네는데,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웬일인지 무척 정답고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암탉은 수줍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수탉은 수줍수줍 하면서 날개들 펼 있게 꼭 몸에 붙이고 피이 한 바퀴 돌더니, 쪽 암탉에게로 달려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암탉은 자기 뺨속이 좀 이상해진 것을 알았

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어떻게 되나 하는지 아무도 이전보다 많이 먹어도, 배가 언젠가 나 코픈 것 같고, 이때까지 별로 생각도 아니하던 여타 가지 음식이 모두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암탉의 뺨속에는 달같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를 지나니까 이 암탉은 흠이 먹고 싶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흠을 쪼아 먹었습니다. 달걀 껍질이 되는 석화질이 부족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뒤가 무척하고 이상하므로, 한 곳 가서 가만히 쏘드려 있었더니, 무엇이 뒤로 쑥 빠지는 것 같더니 속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졌습니다. 그때 일어나 보니 저 앉았던 자리에 노오란 달걀이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암탉은 깜짝 놀라서 “꼬꼬 꼬꼬” 하면서 한참을 태매였습니다. 그 뒤로 이 암탉은 날마다 혹은 이삼일 걸리시 알을 한 알씩 낳았습니다. 이 암탉은 알을 잘 낳는다

고 주인 아주머니가 한 끼를 먹고, 모이도 특별히 많이 받아 먹고, 여러 공부들이 가끔 몇 마디씩 주인 아들의 손에 붙잡혀서 장 속에 잠겨, 저저로 어디로인지 가서 다시 돌아 오지 않았으나, 이 암탉만은 일체까지나 남겨 두고 “우리 종지 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술이 거의 끝나고 몸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 종지 닭”은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나서 “꼬꼬꼬꼬” 하면서, 어디 저리 돌아 다녔습니다. 어쩔지 그저 몸이 호젓하고, 무엇을 품에 꼭 안아 주고 싶은 생각이 잔질하였습니다. 지금은 알이 생기지 아니하여, 알을 낳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낳는 족족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 그 여러 알들이 자꾸만 그렇고, 그 알들을 다 도로 찾아다가 안아 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암탉은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조그만 들렁이를 한참씩 돌고 앉아 있으면 차이차던 들렁이가 암탉의 체온을 받아 따스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 집 앞문이 어제 일로 열려 있는데, 기웃이 들여다 보았더니, 이런 놀랍고 반가운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자기 낳고 낳고한 노오란 달걀들이 한데 모여서 자란이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암탉은 너무 기뻐서 “꼬

하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들아, 너희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니?” 그때도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 등무들 틈에 꺾여 섞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종, 모두가 어디인가? 말대답을 안하게.” 하고 묻게 하였으나, 사실은 말갈 집결소에서 하는 조리가 다른 말갈에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말갈 몇 개가 사뭇 손에 잡혀서 나가더니, 또 다시 몇 개가 붙어 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여러 번의 루미웠습니다. 남아 있는 말갈들은 옛 등무를 보내고, 새 등무를 맞으면서, 세상 일이 어떻게 되어 가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잡혀 나온 말갈들은 겹으로 엮은 속으로 열 알씩 넣었습니다. 열 알씩, 열 알씩 담긴 말갈 꾸러미들이 여러 개 주인이 지게를 타고 읍지읍 쪽 한참을 어디론가 가더니,

사람이 많이 모여 동성거리라는 장거리에서, 여러 다른 동네에서 온 말갈 꾸러미들과 함께 잠시 쉬어 있더니, 그중 몇 꾸러미는 타진가에 살 터 기적코 집장으로 집을 떠날 터인데, 어떻게든 말갈 말리는지 귀가 성하고 말갈들은 뒤걸이 짊어져서 속을자라 같이 잔뜩 났습니다.

말갈 중 머리는 도회지로 팔려 가서, 머칠씩 가게에 놓여 있다가, 수남이 어머니 장복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집결은 깨뜨리고 그곳에, 말기와 집장이 세가 심도 알기 전에 벌써 남비의 말기 시 오지지 익어, 머리는 수관으로 수남이 입을 지나서 수남이 뱃속으로 들어 가고, 머리는 말갈 띠끼가 피어서 색우정과 함께 여러 쌍의 첫가락과 여러 개의 술가락이 피어서 천여 사람의 힘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 간 말갈들은 대개 가 조화되어, 영양분이 되어

서 혈관으로 광히 생명의 재료기어가 되고, 남은 것은 내연의 거어, 기름으로 피소를 키우는 비료가 되었습니다.

...화가 되어 그냥 남아 있는 말갈들은 형무는 짐·방식이나 나란히 파 수는 고인 전, 스릴게 가만히 있던 말갈들은 밭도 다 있었지요. 그리고 그럴면 일다가 화가, 그스한 동으로 다 붓고 말갈들의 수직적, 아주 조곤한 편안하나가 조루를 잡이므로 물었습니다.

이는 마스하니까 기운을 해서 아물아물하며 노른자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취한 있었대 제가 주르니까 사슴 제성기고, 피가 물고, 사슴 물고, 모속한 수종이가 나고, 눈이 열기고, 노오만 습이 전신을 아 수었습니다.

“이건 내가 무엇이 되는 양언꼬?” 하고 중얼거렸으 노른자는 열이 다 먹어 없었으므로 그 말씩 대답적



리가 아니고 우리 세끼였습  
니다. 엄마 닭은 덩아터나 오  
터나 꼭 같이 사랑하고 보호  
하여 주었는데, 좀 자라난  
후에 물 구멍이예를 가니까  
오터는 천성이 물을 좋아하  
는 공물이다, 나면서부터 배  
우지 않아도 물에서 헤엄치  
기는 익숙하므로, 두 오터 세  
끼가 막 물 속으로 뛰어 물  
어 가서 헤엄을 치니까 엄마  
닭은 겁이 나서 물 구멍이 가  
로 빙빙 돌면서 급한 소리로  
어서 나오라고 백식을 하며  
예를 썼습니다.

5

헛결은 바스하고 먹을 것  
은 넉넉하니 덩아터들은 무  
익무익 자랐습니다. 난지 며  
칠 안 되었을 때에는 넓은 세  
상이 무서워서 언제나 엄마  
옆을 떠나지 않고 맴아 다니  
기만 하였는데, 차차 키 가니  
까 담이 커져서, 때로는 엄  
마 곁을 떠나서 멀리 혼자서  
모이를 찾아 나가는 일도 있  
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엄마가 가끔 덩아터를 새 모  
고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면,  
“꾸꾸꾸” 근심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어디 저리 찾아 다니  
다가 잃었던 덩아터를 찾으  
면 꾸중을 독특히 하곤 하였  
습니다.

“얘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  
어라. 너희들은 언제나 어디  
서나 엄마 곁을 떠나선 안된  
다. 너희는 아직 어리고 경  
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 세  
상에는 천으로 무서운 원수  
가 많단나. 까막 잘못하면 너



희들의 어떤 들중이가 못된  
놈에게 잡혀 먹히는 수가 많  
다. 펴도 너희들의 원수요,  
까치 까마귀도 너희를 노려  
고 있고, 개도 나쁜 놈이 있  
어 너희가 따르다로 다니면  
언제나 못써.” 하고 엄마 닭  
이 늘 타일며 주는 것이었습  
니다.

그러나 덩아터들은 언제 어  
떻게 없어지는지 모르지 없  
어지곤 하는데, 그런 때에는  
엄마 닭이 남은 덩아터들을  
다 모아다가 장안에 앉힌 후,  
잃어 미면 덩아터를 찾으려  
고, “꾸꾸꾸” 하면서 사랑으  
로 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해  
가 저고 어두울 때까지 찾아  
도 찾지 못하면, 엄마 닭은  
잠새도록 잠도 못 꾸꾸시고,  
나머지 덩아터들을 꼭 품 안  
에 품고 날개로 꼭 덮어 주  
시고 앉아서 시름 없이 수심  
니다.

하루는 덩아터들이 집 뒤  
밭에서 더위를 먹으면서 놀  
고 있는데, 뉘, 거칠고 큰 손  
이 덩아터를 한 마리씩 집  
아서 바구니 속에다 담았  
습니다. 덩아터는 무서워  
서 두 다리를 비둥거리면서,  
“때악 때악” 살며 말라고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  
니다.

덩아터 5남매 중, 뉘 뉘  
뉘이 꼬만 다른 여러 덩아  
터들 품에 끼어서 이 바구니를  
라고 시름으로 올라 갔습니  
다. 남아 있는 4 남매는 뉘뉘  
각을 하면 궁핍하고 슬펐  
나 뉘 도미가 없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뉘뉘 덩아  
터는 여러 다른 동무들과 함  
께 시름으로 와서 집 가에서  
뉘뉘 사람의 집으로 팔려 갔  
습니다. 그 집은 자기가 어  
까지 살던, 시름 조가집에  
비하면 너무나 열성나게

어름이 지나 가을이 되니  
평야리들은 많이 커서 허름  
물이 되었습니다.

집에 남아 있는 형아리는  
집따 말씀 잘 듣고 할 주의  
하였으므로, 쪽제비나 독수  
리에게 잡혀 가지도 않고 골  
개 곱게 자랐습니다.

물제와 비제도 수평아리인  
데 빛같이 붉은 진 꼬리가 작  
파고 커서란 빛이 왕관처럼  
홀름했고 새벽에 우는 그 “꼬  
끼요” 하고 부는 소리가 수  
평했습니다.

새제와 더섯제는 유아하고  
수집은 암정아리였습니다.

어떤 가을날 이른 아침,  
이 3 남매가 한꺼번에 해보  
루리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수  
평이 어떤 선에 불같이어서,  
수평의 속에 달겨 걸음 왼쪽  
눈 드리 위에 얹어서 신작  
모를 쓴 새 줄이 풀렸습니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쳐  
저희들 살던 집도 보이지 않  
고, 동네도 보이지 않고, 집  
가에 선 포플러나무와 전선  
대가 최최 지나 가는데 평  
신이 어쩔어떨었습니다.

“지금 수평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벌 풀의 평아  
리가 물었습니다.

“두고 봐야 알지, 나도 알  
수 없는데.” 하고 할째 오빠  
가 역시 근심스런 소리로 대  
답하였습니다.

그들은 따름 여러 마미  
의 닭과 함께, 하루 종일  
꿈이 드림을 타고 서울로 출  
타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어

떤 시장 가게로 팔타 갔는데  
어찌면 그날에도 닭들이 많  
이 모였는지, 그리고 사방을  
살피 보니, 흰 새 없이 사람  
들이 왔다 갔다하는데 놀라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  
째 오빠가 먼저 닭 사터 온  
사람의 손으로 털어 갔습니  
다. 깃갈개 안고 가도 향으  
면만, 다리를 세끼로 툭 툭  
어 거꾸로 들고 가니 온 골의  
닭이 머리로 모이고, 새장 받  
은이 모두 거꾸로 모여 어지  
럽기 딱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 가슴 것을 치풀터서 문편  
을 다소락 보았으나, 할꼬가  
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 없이 어찌어찌 걸어  
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큰 대문 앞으로 들어  
서더니, 그냥 팔에다 닭을 평  
거려 놓고, 무덤으로 들어  
가더니, 시퍼런 새알을 들고  
나와서 닭의 목을 썰었습니  
다. 닭은 몇 번 두더두더 울  
지어 보았으나 새가 다 목으  
로 끊어져 나오자 조용히 죽  
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닭은 요리가 되고, 어  
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 몇속  
으로 돌아 가서는 조화가 되  
어 사람들의 에네르기가 되  
었습니다.

—7—

서울로 팔타 온 나머지 두  
마미 남매 닭은 마른 닭 수  
십 마리와 함께, 어떤 정장  
한 비둘기집 뒷문으로 관려 문  
아 갔습니다. 역시 모두 목  
을 베우고 털을 뜯기우고,  
어떤 최아한 껍데기 속 신반

취에 적지 놓였는데, 닭들은  
여러 개의 선반과 살자가 있  
고, 또 새장 닭판이 아니라 새  
고기, 계육, 사이드야, 조  
실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즐  
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마미 닭은 죽어서 어떤 큰  
양으로 집 전기 냉장으로 한병  
들어 간 것입니다.

오, 3 달 동안은 그 냉장으로  
죽어서 썩을 일이 있다가 신  
반에 함께 놓이면 여러 마미  
닭들과 함께 요리가 되어 식  
탁으로 올라 가, 여러 사람의  
입과 삼지창에 뛰어들어 힘  
으로 끌어 올려 버릴 기쁘게 해  
준 후, 대로 풀다가 대부분은  
소화되어 살점을 통하여 사  
람의 에네르기가 되어 수  
고, 약간 버려지는 때면이 되  
서, 새장에 도로 나와 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새끼를 낳아  
비요리 되어서, 새끼를 낳지  
않아 번짐을 해치고 죽어 나오  
는의 일을 수었습니다. 이 시  
간에는 무려 100 사람의 닭을  
기쁘게 해 주고, 편하게 소  
화되고, 새끼기는 다시 피로  
가 되고, 이리하여 이 연애, 가  
용속 영원 부궁하게 계속된  
것입니다.

서울 집에 남아 있는 처녀  
닭들도 때가 되니 달걀을 낳  
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걀 낳는 달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후  
문고 싶으면 이 이야기, 벌  
치를 사육으로 가서 마시  
어 내어 오십시오.

(그림·김현중)

# 작문과 동요

제 2 회 "경기도 교육 전시회" 감상 작품 중에서

해방 후 우리나라의 "경기도 교육 전시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여기 가서 관람도 많았거니와 대성황을 이루었다. 여기에 실린 작문과 동요는 작문부에 모인 수만 편 중에서 뽑힌 것으로, 그 중 작문과 동요 편

과 동요 3종 3편, 2종 2편, 1종 1편을 이리 문에 게재해 보았으며, 크며 크이 작문과 동요들은 이월 주간을 거쳐 실경에서 심작 위원장이 피서하여 심사하신 것입니다. (기사)

작문 1등

## 첫서러 온 날 아침

광주군 도수 국민 학교 5년

조성룡

방안이 써느렇게 찬 바람이 휘돈다. 벌써 아기는 잠이 깨어서 무어라고 지저거리며 기어 다닌다. 나는 손을 내밀며 "아기"



하고 불렀다. 아기는 새파란 입술을 하고 눈으로만 땡깡 웃으며, "에에" 한다. 그 때다. 밤에서 아버지가 "오늘은 고추도 뽑아야지, 왜 이렇게 서늘어." 하시는 목소리가 들려 온다. 나는 자리를 접어 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여니, 방안간 찬 바람이 온 몸을 싸든다. 어머니는 아담을 쓰매질 하시고 계시었다. "왜 이렇게 추워요?" 하고 물을 내려서리니까, "저 짐을 좀 보아라." 하신다. 하얀 은 가루를 뿌려 놓았다. "아! 서리." 또 나는 소리쳤다. 울타리의 호박잎, 지붕에 막잎, 화단의 꽃잎, 죄다 맺을 앓고 서늘어졌다. 벌써 저리가 왔어



동요 1동

### 해 님

양주군 필내 국민 학교 2년

정찬규

예쁜 햇님  
떴다 동쪽  
밝았다 땅이.

좋은 햇님  
진다 서쪽  
어둡다 땅이.



동요 2동

### 할아버지 장죽

고양군 성석 국민 학교 3년

어수덕

우리 할아버지 장죽,  
무척무척 길어요.  
아랫목에서, 웃목에 있는  
목침도 끌어대려요.



우리 할아버지 장죽,  
우리 아기 귀에 대고  
쫄쫄쫄 쏘……소리내요.  
아기는 눈을 감지요.

동요 2동

### 우리 집 밤나무

과주군 봉일천 국민 학교 5년

조용식

우리 집 밤나무는 왕밤나무  
동생하고 나하고 아담 줄  
밤나무.

바람 불면, 댕댕글 하나, 둘  
셋.

흔들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리 집 밤나무는 큰밤나무  
아저씨, 표마 때에 심은  
나무.

밤나무에 올라서면 벌판  
외고.

산 넘 | 푸른 하늘 보인달  
니다.



필요 3종

단 풍

계성 원성 국민 학교 2년

우 정 화

이 산 저 산 붉은 손  
작작 밀리고  
직년 왔던 기러기  
어서 오라고  
붉은 손을 흔들며  
손짓 합니다.



궁 금 훌 이

○립립한 땅에 잎아가 잠  
자기 맑은 곳으로 나가  
면 논이 푸실 것은 어떨  
까하십니까? (서울 남대  
문로 조영상)  
●립립한 땅에 잎을 먹  
어는 논농사가 커져서,  
오빠로 약한 밭이라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잡자기 맑은 곳으로 나  
가면, 커질면 논농사의  
밧이 한꺼번에 깊이 들  
어 오기 때문에, 자연히  
논이 푸실게 됩니다. 그  
러가, 시간이 지날수록 논  
농사는 점점 오빠로  
어, 알맞게 밧이 들어오

게 되므로, 논 푸실 것  
은 파파 엮어져 경시의  
잡게 됩니다. (원정철)  
○오빠리는 밧 곳의 밧서  
노잘 밧는다는데, 밧  
원마나 되는 거리의 밧가  
지 밧는 수가, 있나요?  
(서울 고기역)  
●아주 오빠리는 자기의  
그진 노잘을 하는 것  
잡습니다. 밧 마인( 밧)  
의 밧새까지 밧아 밧가  
고, 하니바요. 그 밧일이  
면 노잘 잇수( 밧)로 거  
의 10 리나 되는 밧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원정  
철)

★ 화 화 작 난 ★

눈에 안 보이는 잉크

이 안 보이는 잉크로  
를 글씨는 처음에 종이  
에 써서 달렸을 때에는  
글씨를 썼는지 안 썼는  
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색이 나타나는 이상한 잉  
크입니다. 화학작용(化  
學作用)을 글씨와 용용  
한 것이므로, 이 잉크로  
작난을 하면 모르는 자  
이에 화학에 대해서 세  
미가 알게 됩니다.

오로 노잘 가지고 그 글  
술, 세 열필 속으로 먹어  
서 된 종이에 노잘이나  
글씨를 써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노는 밧 환경이 마르  
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  
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화롯불에 띄거나 뜨거운  
다마기로 때리면 글씨나  
그림이 뚜렷히 나타나서  
어간 재미 있는 것이 아  
닙니다.

파실 물로 쓰는 법

재료 가게에 가서 오  
파(王酸)를 한 개 사온  
다, 또한 정해 있으면  
더머니에 한 개만 주실  
자고 하십시오.

참고 볼 수 있는 책도  
립립 속은 세 것으로 쓰  
십시오. 호파 뿐만 아니  
라, 메론, 수부, 수유도  
도 됩니다.

만드는 법 호파를 만

은 손장들은 열심으로 그들  
 가 좋은 의견을 조감도 갖추  
 가 않고 시도 이야기할 수고  
 받고 있었습니까. 그러하여  
 마침내 새로운 형태(形體)의  
 나라를 세우기로 의정이 결  
 처하였습니까. 때마침 박혁  
거세(朴赫居世)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는 종  
 히 여섯마음을 아스면 뿐만  
 아니라 세 나라의 마음 상을  
 알았을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  
 러하여 이 사람을 받들어 일  
 군을 삼고 나라의 이름을 신라  
(徐羅伐)이라 하였습니  
 다. 그러하여 여섯마음 사람  
 들은 모두 피말에 넘겨서 세  
 나라 건설의 온갖 일을 맡지  
 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  
 섯마음의 작은 단결이 출발  
 길이 커서 나중에 삼국을  
 통일(統一)하여 우리 나  
 라의 참된 영토를 확신했습니  
 다. 이것은 팔 할의 작은 씨가 마  
 림내, 락을 맺는 큰 나무가  
 되며, 또 한 땅을의 풀이 모  
 이어서 마른내 큰 강을 이루  
 는 때 비할 수가 있다고 하겠  
 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3일  
 간 "신라제"라는 것이 이 곳  
 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섯손장에게 제약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신  
 라 제국의 거룩한 역사를 도  
 미키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정신을 오늘에 살피자는  
 것입니다. -식장은 북천(北川)  
 언덕 위에 있는 고성림(高城林)  
 이라는 역사 깊은 숲  
 입니다. (제 1 도 × 표) 많은



(제 3 도)

사람 모이었습니다. 동서  
 남북에서 여러 마을 사람들  
 이 새 옷을 입고 모여드는 광  
 경은 아득한 옛날을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식상에는 권  
 막을 친 속대 제상(額床)을  
 놓고 그 위에 경장은 앉혔을  
 것이고 제상 위에는 신성한  
 과실과 곡식이 놓이고 그 중  
 앙에는 커서 온 한 마리를 놓  
 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이  
 또 변바른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아무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드리는 사람 중  
 에는 앞부 위에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도 섞여 있고 또 구  
 경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떠  
 드는 바람에 조용히 옛날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심심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곳  
 에 참례하며 은노약자들만이  
 잘 보이자도 많은 귀애선 정  
 속의 글을 짓고서 있는 것을  
 보므로 미안한 마음을 참을 수  
 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3일 동안 서울 농약 가장  
 행렬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행렬(假裝行列)이라는 것은  
신라 임금의 기풍을 보여 주  
는 것이었습니다. (제 3 도)  
 십이지 (十二支 "소학성" 48

호 26 페이지를 모십시오.) 동  
 물의 한을 머리에 쓴 일 두 사  
 람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김 유신(金庚信) 장군이 말을  
 타고 있고, 그 뒤에는 금관을  
 쓴 임금이 가마 위에 앉아 있  
 고, 그 주위에는 시종들이 따  
 르고 있었습니다. 아미한 순  
 서의 행렬이 경주 시내를 돌  
아다니는 광경은 옛날의 모양  
을 보여 주는 뜻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라든지 의  
 복에 대하여서는 더욱 많은 언  
 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신라제"는 비록 기대와는  
 잘의 못하여 심심한 마음을 참  
 을 수가 없었으나, 경주의 아  
름다운 사연과 빛나는 역사의  
자취가 이르는 곳마다 남아  
있어 신라의 맑은 지성(知性)  
과 넓은 마음과 높은 기상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은 참으로  
희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  
 데마다 우리도 신라에 지지  
않는 훌륭한 나라와 높은 문  
화를 계승하는 데 있는 힘을 나  
려야만 되겠다고 깊이 견  
 심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개성  
 공업 중 학교 선생님)

(1) 서울 인심

에전에 충청도 어느 곳에  
김 장천이라는 가난뱅이 양  
반이 살았었습니다. 그 때는  
양반들은 당장은 아무런 가  
난해도, 한문 공부할 걸레치  
요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  
슬만 한다면, 다시 남부  
럽지 않게 부귀와 영화를 누  
릴 수 있었으니까, 상사함을  
은 가난하면 어떻게 가난을  
변할까 하고 부지런히 농사

일도하는 대로 어느 양으로  
들어 갔습니다. 땅을 파고마  
리나 깨끗한데 아랫목에 자려  
가려 있고 자려피로 떠다 놓  
았고, 머리맡에 요강 띠구와  
종문바람이끼 모두 이 여관  
으로부터는 특별한 배수였습니  
다. 수인이 생각할대 이 손님  
이 과거 보다는 시골 양반이  
분명하니, 정월 급제라도 한  
다면 하면 무슨 덕이나 문양으  
로 그의 덕을 받게지요.

김 장천 양반은 자못 남부  
럽히 요만한 관에 갖을 잊어  
못에 걸고 보려피와 요로 마  
지 저고리를 싣혀 일어나 벽  
장에 넣고 자려에 누어 급제  
코를 드르렁 드르렁 울기 시  
작했습니다.

아침에 "부부나 비치 사려,  
부부나 비치 사려." "부드런  
사수 부드러운 사수." 하고 장  
사들이 최우고 다니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부러나  
게 옷을 입고서도 벽장 문을  
열어제치고 보나 아 거기 가  
마로 행진이더랍니다. 내다  
보니 벌써 보려피와 요로 마  
지 저고리는 잔 대가 없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2) 남의 다리 긁기

제것이라고는 예가 넓다만  
통일 갖 하나 뿐이더 어찌할  
수 없어 입맛만 다치고 있으  
려니까, 여관 주인이 밤새 잠  
잠느냐고 문안을 했습니다.  
김 장천 양반은 이 떠할 사정

이야기를 하고 붓과 종이를  
청리영 편지를 지사 서울 사  
는 일가 집에 전하여 달라하  
였습니다. 허욕고 그 집 하인  
이 가져 온 옷을 입고 그날  
부여는 그 일가 집 사방에서

저녁기도 하였습니니다.  
그 집 사방에는 다른 파  
들도 많이 와 있었으므로  
이런 다른 손님들과 같이 나  
만하 누어 갔습니다.

어느날 밤에는 창드마니  
김 장천 옆에 자고 있던  
님의 다리를 누가 막 긁며



니다. 가정사로 할로 또 불온  
 감이 달라고 생활 적도 없는  
 때 열의 사람이 죽고 자기 다  
 리를 일으키자, 그 사람은,  
 “하 이거 저 이거시요?”  
 하고 손을 잡아 꾸며줬습

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집 장  
 친 양반의 하는 말이 “나이,  
 어찌가 할만 감이도 시인치  
 않더군!” 하며 합니다. 이것  
 이 아마 “남의 다리 감기”라  
 는 말의 시초일가 불너라.

### (3) 집 망 건

집 장친 양반은 어리석다  
 느니 보다 마음이 무뎠히 작  
 하고 고지적하여, 그런 웃을  
 거나 실례를 한 것이 한부  
 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있을 적에  
 어느날 일가 집에 대상이 있  
 어서 참례하며 잔일이 있었  
 습니다. 어찌 일가와 손님이  
 왔는데, 저녁 때에 상식을 저  
 내고 나서는 세력별이나 피  
 이상 대상은 저내는 것이니  
 까, 골짜를 하는 사람이나 그  
 구경을 하는 사람 외에는 그  
 때까지 한잠 자기로 하였습  
 니다.

모두 도포와 갓하고 망진  
 을 벗어서 못에 걸고 자리를  
 저마다 잠도 입은 채로 누어  
 자는데, 집 장친 양반은 너  
 무나 여러 번 도처에서 실례  
 를 거듭하였는지마 이번에는

정신을 바라 차리며마고, 나  
 중대 찾기 어디를 것이마 생  
 작하고 망진은 쓴 채로 자기  
 로 하였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모두 일어나 소  
 세를 하고 온 갖을 정제하는  
 때, 집 장친 양반은 아까 예  
 비로 망진을 머머 쓰고 잔 것  
 은 짝짝 있고, 열떨집에 남의  
 망진을 또 하나 집어 쓰고서  
 참례를 하였는데; 그러니 어  
 떤 사람 하나는 망진이 없어  
 졌다고 찾느라고 야만 범석  
 을 하지만, 집 장친 양반 머  
 머 위에 있는 망진이 아무라  
 찾은줄 나을 까닭이 없지요.  
 대상이 끝나고 아침이 되어  
 환하게 밝으니, 집 장친 양  
 반 머머 위의 집 망진이 불  
 어나서 망진을 옥옥히 망하  
 였을 것이야 물론이었겠지요.

## 이거 참 심상

### 유리 그릇 닦는 법

전, 명, 그릇 등 무엇이  
 고 유리로 만든 것을 깨끗이  
 닦으려면, 불에 재를 라 가  
 리고 같이 끄려면 됩니다.  
 주의 해야할 것은 끓는 불에  
 넣지 말것. 또한 가지는 불  
 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꺼내  
 야지 식기 전에 꺼내면 그릇  
 이 더러기 쉽습니다.



### 산길을 갈 때 필요한 방울

깊은 산길을 갈 때에는 방  
 울을 준비해 가지고 가십시  
 요. 비고사코에 매달은 방울  
 이 말랑말랑하면 말도 덜 피  
 로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이  
 나 안개가 몹시 짙을 때 동  
 무끼며 연막하는데 절대 필  
 요합니다.



통 요 . 우리 집 담 윤 석 중

우리 집 들 담은  
나보다 나보다 키가 얇다.

둥근 박이 담 위에서  
마음 놓고 잠을 자고,

바람이 산들 산들  
담을 넘어 드나 들고,

보름 달이 담을 넘어  
우리 뜰에 놀러 오고,

우리 집 들 담은  
나보다 나보다 키가 얇다.



(그림·정 현웅)

위대한 모녀

큐우리부인과  
조리오부인

박 동 식

4. 새 원소(原素)의  
담구.

발명이나 발견은, 단지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사회 전체가 진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견이나 발명은 말하

자면 많은 사람이 영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 사색을, 마음을 밝히게 하고 멀리 사람이 뛰기를 고집하는 곳에서부터 뛰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에 열, 과학도 그렇게 합니다. 열렬하게 뛰어서 전 격차(距離)를 넘어 정복하는 것입니다. 끝내 도착하는 것은 맨 나중에

사람-문입니다만, 그가 보스 르 친구를 혼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먼저 된 많은 사람의 힘이 그를 최후의 끝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발견이나 발명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사다 한 발작을 한 사람이 발명자(發明者) 발견자(發見者)로서 정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발견이나 발명은, 오랜 옛날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結晶)입니다. 큐우리 부부의 훌륭한 발견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새 원소(新原素)라 이름을 붙이기 까지는, 먼저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거듭하여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1879년, 영국화 물리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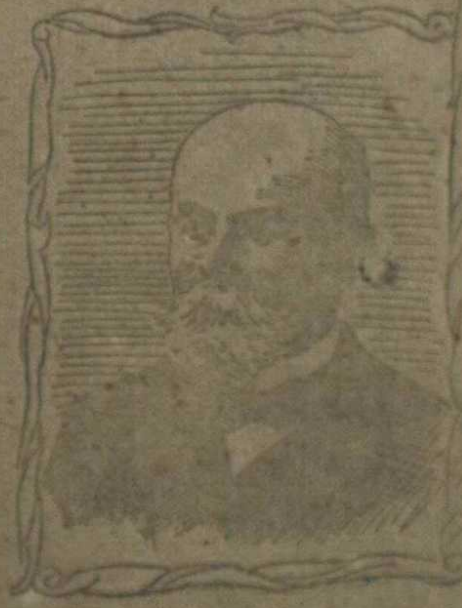
라틴 크룩스란 사람이, 진공관(眞空管)의 음극(陰極)에 가가 고압 전류(高壓電流)를 통하면, 한 가지의 특별한 방사선(放射線)을 발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크룩스는 이것을 음극선(陰極線)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학자가 연구한 결과 이 음극선은, 엘렉트론이란 음전기(陰電氣)를 띤 먼( 먼 입자(微粒)로서 되어져 있는 것, 엘렉트론의 무게는 원소 중 제일 가벼운 수소(水素)의 1/1836분의 1인 것 등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십 수 년을 지난 1895년, 독일의 엔젠(보통 엔트겐이라고 불리웁니다만 옳은 말로는 엔젠입니다) 교수가 진공관에 있는 또 다른 기묘한 방사선을 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방사선은, 불투명체(不透明體)의 내부까지도 침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인체의 내부까지도, 이 선에 비치어 보면, 그림자 같이 솟아 보였습니다. 또 이 선을 어떤 광물(礦物)에 대면, 그 광물은 우르스레한 빛을 내며 번져 일어났. 이것을 인광현상(燐光現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일종의 전자파(電磁波)이며, 기체(氣體)를 이온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波長)은 한 인치의 1/100000분의 1이며, 사진판(乾板)에 옮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불투명체의 내부의 사진

음 작용 수도 있습니다. 말잔자의 이름을 따서 엔젠선(線), 또는 엑스선(線)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엑스 사진은 의료(醫療) 등에 지금 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젠의 발견은 파리 대학의 베크렐 교수에게 암사(暗寫)를 주었습니다. 베크렐은 인광성 물체(燐光性物體)의 일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광성(燐光性)의 물체란 것은, 이것을 태양의 광선에 대면, 일종의 빛을 낸다만, 이 빛도 엑스선 같이 불투명체의 물체를 뚫고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베크렐은 이러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실험 재료로는 우라늄으로 하였습니다. 그는 우라늄을 햇빛에 쬐어 두지고 검정 종이에 한 시간

간만 위치를 놓았습니다. 그 때로 나중에 사진을 살펴 보니 분명히 감광(感光)되어 있습니다. 우라늄이 발하는 인광(燐光)은, 여기서 검정 종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확실하여졌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검정 종이 대신으로 검은 금속판(金屬板)을 써 보았습니다. 한편은 역시 감광(感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라늄에서 발하는 인광(燐光)은, 엑스선과 같이 불투명체의 내부에 침입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이 개이지 않았으므로, 베크렐은 우라늄을 태양 광선에 쬐이지 못하고, 검정 종이로 된 사진판 위에 놓아 저장 실험이 벌이 되었습니다. 그 5수일 지나서 꺼내 보니 역시 한편(乾板)은 감광(感光)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베크렐 교수



엔젠 박사

에는, 먼저 일광에 표이지 않았으므로 한편에 감할 것은 일광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라늄 자신이 불투명체 까지도 불고 나가는 방사선(放射線)을 발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베르텔은 우라늄의 방사하는 이 빛을 베르텔선(線)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더울 발견의 준비는 이렇게 하여 되었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벌써 마지막의 하나 못 미처의 코오쓰를 뛰어, 마지막 뛰는 사람에게 파장을 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을 받은 사람은, 파티 대학에 있는 베르텔의 동료 유후다 교수와 그의 부인 마티이었습니다.

베르텔의 새 발견에 자극을 받은 마티는 우라늄 외에도 방사능(放射能)을 가진 원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연구하여 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방사선은 비를 이온화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방사선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원전기(驗電器)를 사용하여서, 기체가 이온화(化)되어 있나 없나를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 하나의 원소를 꼼꼼히 조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어진 원소 중에서는, 우라늄 외에 도름 뿐이 방사능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에 벤티쿠델드를 조사하여 보니까, 그것은 강한 방사능을 보였습니다. 벤티쿠델드는 우라늄의 가장 보통인 광

석입니다. 우라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방사능은 순수한 우라늄에 비하여 세배나 강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대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벤티쿠델드 속에는, 우라늄과는 다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있기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 원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다른 원소는, 도름을 제하고는, 방사능이 없다는 것을 마티는 이미 밝혀있던 것입니다.

벤티쿠델드 속에는 새 원소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훌륭한 발견이었습니다. 부인을 대단히 기뻐하여 남편에게 이 일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건 굉장한 발견인걸! 참 잘도 했소.”

하고 피델은 부인의 손을 잡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마티 이 새 원소를 분리(分離)해야 되겠어요. 망신도 도와 주시지요 네.”

“물론이지”  
이러하여 두 부는 새 원소 분리의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델의 재능에 의하면 이 원소는 원광(原礦)의 몇천 만분의 고이마 할 만큼 희박하게 밖에 있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적어서는 분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물 편찮아요. 그 대신 공식을 아주 많이 쓰면 되니까.”

그러나 벤티쿠델드는 값이 비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양지는 불과 몇 곳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량으로 필요하다면 대학 교수의 월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목표도 낙연한 연구에





많은 비용을 내 줄만큼 과의  
대비를 너그러워도 너그러워  
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곤란에 이  
게 나갈 수 있을까? 부부는  
이러한 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섬사며 좋은 생  
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살윈주 대학 연구  
소의 아루판이란 사람이 있  
었습니다. 아루판은 오오스  
르미아 정부에 몰려서 가서  
지금도 보헤미아의 광산 요  
아일스다알에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에서 손 팔은  
유명한 벤티루멘드의 산지입  
니다. 마리이는 문득 아루판  
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왔군요. 어  
보세요. 아루판씨에게 부  
탁합시다. 그러면 꼭 어떻  
게든지 힘치 수실꺼예요."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러  
나 아루판해두 좀 무리한 부  
탁인걸."

비씨는 마음 속에서, 이  
일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  
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걱정  
하고 있습니다.

"원저도 부탁할 수도 없겠  
지?"

"아니요, 내가 갔다 오지  
요."

"그건 큰 일인걸. 험한 산  
들이니 어자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강(講)가 없을 때라면  
공경하는게..."

"아아니요, 걱정 마세요.  
어디 키르 나는 걸 때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 강원 반곡 국민 학교

뚜름 산 맑은 물에 자라난 기상

새 나라 주초가 될 용사이로다

우리들 앞날의 터를 닦는 이마당

영원 무궁 빛나리 우리 반곡 만세 만세

향토의 문화 발전 사명을 띠니

큰 힘과 굳센 정신 키워 나가세

우리들 앞날의 터를 닦는 이마당

영원 무궁 빛나리 우리 반곡 만세 만세

(조완복 지음)

마리이는 웃으며 이렇게 대  
답하였습니다. 가령 걸는데  
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  
귀중한 때에 어찌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결심은  
바위 같이 단단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남편과  
시아머지의 전송을 받으며  
보헤미아로 떠났습니다. 도  
중까지는 기차가 있습니다.  
청거장서부터 광산 기슭에  
있는 마을까지는 마차를 이  
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서부터 앞길은 험한 산  
길입니다. 게다가 마리이가  
그 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밤  
이 저녁이고 빗방울까지 떨어  
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  
람들은 하루 밤 기기서 자고  
다음 날 만 길로 돌아서 마  
차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이는 한시라도  
허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편하는 것을 뿌리  
치고 그는 광산에 향하였습니다.  
도중에서 심한 폭풍이  
불고 천둥번개까지 시작하였  
습니다. 관계서 물이든 천둥  
의 무서움이란 말할 수도 없  
는 것입니다. 결심 굳은 그  
였으나 몇 번이고 길을 막고  
"한 울 것을 했나."

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렇다  
고 지금부터 되 돌아 갈 수  
는 없습니다. 그는 용기  
내고 감감한 폭풍의 산 길  
길에 갔습니다.

천하게 물이 드코 미  
알았습니다. 온 몸이 다 젖  
고 한시 피곤할 그가 문득  
모니 한 아래 요아일스다알  
의 광산 마을이 한기 속에



②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

말 없이 내려가 보고 있는 마티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밀코 피르운 길 끝에 겨우 성도(聖都)에 도착한 순례자(巡禮者) 같이 그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 속 사무소에 마티아가 찾아 가니 기사(技師) 알판은, 잠코 수수한 옷을 입고 있던 포올랜드의 소년들, 잊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알판은 필 듯이 반가이 그를 맞이 이것 저것 대접하였습니다만 특히 마티아가 찾아 온 목적(目的)을 들었을 때에는 감격에 넘친 조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힘껏 해 주었습니다. 오오스트리아 정부가 두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귀 학문을 위해선데요. 꼭 알아 들도록

말해 보겠습니다.”

알판은 적절 때문에 판터의 대학을 떠나 먼 나라 산 속에 외웠으나, 과학의 진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판은 마티아의 이야기에서 이 포올랜드 학생의 부인이 영원히 빛날 위업을 이루려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미하여 자기는 언제까지나 산골에 머물러 있는 생각을 하면 꼭 괴물코 쓸쓸하였습니라는 것이 때문에 시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은 마야 초르 기체할 합필을 내 더더고 한다. 거기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판은 오오스트리아 정부의 당국자에게 열심히 부탁하였습니다. 그의 성의는 보답되어 마티아가 판터에 돌아 갈 때 얼마 안가서 오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그 온의 뱀지루멘트가 부부의 연구실에 꾸려 있습니다. 오오스트리아 정부도 과학의 진보에 기여(寄與)하려고 한 것입니다.

드디어 새 원소 탐구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함 알의 모래를 찾기 위하여 넓은 사막의 모래 전부를 한 알씩 한 알씩 찾아 내는 듯한 일이었습니다. 뱀지루멘드 속에는 실로 많은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분별해야 합니다. 찾아 내려는 물질은 전체의 몇 천만 분의 일이라는 것은 양입니다. 게다가 그 성질은 방사능(放射能)이 있다는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들으로 빠져 나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무기는 열전기(熱電器)였습니다. 뱀지루멘드를 한 덩어리씩 꺼내어서는, 열전기로 그 방사능을 조사하고, 방사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다 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날마다 날마다 부부는 계속하였습니다. 한 통의 뱀지루멘드는 창고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찾아 내려는 물질은 불과 몇 미터그램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알판 곤란할 일이라도 이 탐구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강철 같은 끈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론 찾아도 찾아도 기쁜 결과가 나올 때에는 다시 시험관

照管)을 받질 생각이 안났  
 해도 좋았습니다. 그 때까  
 두 사람은 서로 적어왔습  
 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의 한 가지 일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지이  
 나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위로와 희망을  
 받았습니. 그들의 일은 조  
 금씩, 그러나 확실히 전(轉)  
 었습니. 에저우엔드의 한  
 을 점점 알아갔습니. 마침  
 내 시험관 속의 한 점을 남  
 기고 에저우엔드는 잊어선  
 것입니다. 드디어 새 원소는  
 이 작은 시험관 속에 감피어  
 어떤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고 전성(純晶)  
 식히고, 열(熱)을 가(加)하  
 고, 전기를 통하고, 날마다  
 날마다 일은 계속 되었습니  
 다. 이 부부의 고집의 할 줄  
 모르는 공자에 도저히 전할  
 수 없다는 뜻이 새로운 원소  
 는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포로늄이  
 었습니. 포로늄이라는 것  
 은 마리야의 고국 폴란드  
 의 이름을 따라 그가 지은  
 이름입니다. 포로늄도 광성  
 한 방사능을 나타내었습니  
 라는 남아 있는 물질은 한순  
 며 강한 방사능을 가지고 있  
 었습니. 그러나 이 나머지  
 원소가 고집 세게 저항하고  
 업사며 나타나지 않는 것입  
 니다. 이 원소는 굉장히 화  
 합력(化合力)이 강하여 가까  
 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화  
 합해 버립니다. 저 홀로 있  
 는 일은 거이 없습니다. 마

리아가 드디어 1908년 이  
 원소의 본디에 성공하였을  
 때에도 그것은 바로하고 화  
 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러나 화합하고 있는 때에라  
 도 그 성질을 알 수는 없었  
 습니. 그 원소는 우라늄보  
 다 3배 5십만 배나 활동력  
 이 강하여 분할 없이, 대량  
 광산의 죽으로 비르연련(比  
 較)하고 속도로(高速度)의 방사선(放  
 射線)을 방출(放射)하고 그 방사선  
 은 감광판(感光板)에 닿아서  
 공기를 전리(電化)시키고 일  
 장(張)을 이끄는, 줄고 있는  
 열량(熱量)은 식단의 십만  
 배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랄만큼 성질을 가진 물질  
 이 존재하리라고는 세세까지  
 상상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원소는 마리암의  
 라고 이름 지어졌습니. 방  
 사능이 강한 물질이라는 의  
 기입니다.

마리암의 발견은 단순히  
 어지까지와는 다른, 원소의  
 발견이라는 것 중 한이 아닙  
 니다. 그것은 물리의 원자  
 (原子)의 구조론(構造論)을  
 일면시키는 큰 일이었습니  
 다. 어찌까지는 원자는 변하  
 지 않는 것, 이 이상은 어떻  
 게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믿  
 어져 있었습니. 그런데 마  
 리암을 연구하여 보니, 이 원  
 소는 끊임 없이 방사능 계속  
 하게 변하여 파를 내는 등의  
 새 원소를 방는 것입니다.  
 즉 원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됩니다. 마  
 리 원자가 불변한다는 가설

동요. 짜 이 렌  
 이 기준  
 ...이 렌이 볼 자마타  
 인데는 나를 업고 허공  
 지중  
 애미로로 다들질 되던  
 일이  
 생각하면 수습지요.  
 무슨 ...이 렌이 볼 자마타  
 라고 잔 우미 연녀 허공  
 지중  
 적모 볼고 다들질래 오  
 던 일이  
 생각하면 수습지요.

(假設) 위에 세워진 중미의  
 원자 구조론은 루미에서부터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까 마리암의 발견은 세계의  
 물리학을 근본적으로 깨뜨리  
 버린 학문 상의 대지진(大地  
 震)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유우리 부부는 승  
 리를 얻었습니다. 명예는 그  
 들의 머리 위에 찬란하게 빛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8  
 년, 마리아는 파리 대학에서  
 학위(學位)를 받았습니. 이  
 때 두 사람이 베르렐과  
 함께 노오늄 물리상을 얻은  
 것은 먼저 말한 바와 같습니  
 다. 같은 해 영국 국립 협회  
 (國立協會)의 메이 상패  
 (賞牌)가 그들에게 수여(授  
 與)되었습니다. 부부는 감자  
 기 학계의 사랑을 받게 되  
 고 그 이름은 온 세계에 유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예  
 는 확실히 그들에게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 어린이 새소식

보통 사람보다 큰

## 손 기정·서 윤복 선수의 심장

손 기정 선수, 서 윤복 선수는 여러 분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마라손을 잘하고, 우뚝하는 무엇이 다른지는 모를 것이다. 이 두 분의 체격과 체질을 보면 제프람스 의원에 교수로 계시던 최 성장(崔性章) 박사가 자세히 연구 발표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 우뚝하는 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코 보기에 선 선수의 체질은 나뉘어서부터 스스로 몸에 지방 하도록 되어 있다. 마라손 같은 긴 거리를 뛰는 데는 선 선수와 같은 가볍고 자그마한 체격이어야 한다. 다음 맥박(脈搏) 수는 가만히 있을 때 중년 측이 보통 1 분간 70 내외인데, 서 선수는 64, 손 선수는 63 회다. 경주 후에는 보통 사람이 120 인데, 서 선수는 70, 손 선수는 84 회다. 혈압(血壓)은 보통 사람이 운동 전의 최대 혈압이 120 cm(水銀柱)로부터 130 cm인데, 서 선수는 104 cm이고, 손 선수는 110 cm다. 또 운동 전의 최소 혈압이 보통 사람은 80 cm인데, 서 선수는 68 cm이고, 손 선수가 60 cm다. 그리고 운동 후의 최대 혈압이 서 선수는 120이고, 손 선수는 130이다.

이 두 선수의 심장은 보통 사람의 심장보다 훨씬 강하고 큰 것은 물론인데, 서 선수의 심장은 소위 우심(牛心)이란 것이다. 즉

운동을 자주 계속하는 관상으로 심장이 흔흔하게 단번되어, 좌심실(左心室)이 크게 자랐고, 특히 횡격막(橫隔膜)으로 옮겨 가게 되는 부분에서 커진 점이 심하고, 우심실(右心室) 역시 커져 있다. 이따하여 보통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손 선수와 비교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두 마라손 선수는 나더부러 그렇게 뛰어난 체격과 체질을 가졌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서 그 큰 명예를 얻은 것은 아니다. 오직 오랫동안 걸린 한 없이 단련과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일반 운동가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통의 내용은 대강 이상과 같은데, 최 박사는 1935년에 우수한 손 선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 연구하여, 세계 의학계에 보고한 바 있어, 이미 그 방법의 권위자로서 이름이 높거니와, 이번 서 윤복 선수에 대해서도 약 50 페이지가 되는 귀중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 새로 발견된 문산 동유동

평남의 동룡굴(龍窟)과 유사한 동유동(洞乳洞) 석회암(石灰岩)이 탄산(炭酸)이 들어 있는 물에 녹아서 된 공(孔)이 겹겹이 모퉁(波山) 역 부근에서 새로 발견되었는데, 그 부근 일대에 들어

서 있는 동유(洞乳) 선생의 화석정(化石亭) 등, 고고학적(考古學) 유물과 아울러, 전기 동유동을 자연 과학의 연구 재료로서 세계 널리 소개하고자, 고려 영회사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등, 각지에서는 가지가지 제의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 사의 동유(洞乳)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수일 전 석출을 위한 지질학부, 동수 관측사 등에게 부탁하여 현지로 조사를 보냈다.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앞으로 전기를 개설하고 부근 일대에 석출을 많이 있어서 경제 문제가 무어 노면, 서울에서 가까운 동양 지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 미국에서 조선 여학생

#### 음악 대회에 1 등

마라손으로 역도(力進)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세계적 빛나는 기록을 세우며, 역력하게 세계 무대를 넓어가는 이때, 또 미국에서는 조선의 젊은 여학생이 큰 명을 얻는 미국 음악가들 불려지고, 현상 음악 대회에 당당한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 왔다. 즉 미주 시카고 상공회에서 열린 현상 음악 대회에는, 8원 여명의 선진 음악가들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19세의 조선 소녀 이 성희(李盛姬) 양이 1등으로 당선되어, 당장 미국 음악가들을 불러들였다. 이 같이 수 많은 미국 음악가들 불려지고 1등으로 당선한 이 양은, 전여성을 이화 고비에 다니다가, 이 평안 편편 직전에 아비일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철학을 공부하는 한편 성악도 연구하였다는바, 지금은 시카고 대학 철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 우리의 자랑 "조선 말 큰 사전"이 되기까지

지난 10월 9일, 즉 선정연말이 온인 정을 맞이해 501주년째 되는 뜻 깊은 날에 "조선 말 큰 사전" 첫째 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로서 이 사전을 조선어 학회 여러 선생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전을 만들자는 의논이 시작되기는 지난으로부터 19년 전인 기원 1932년(서기 1929) 10월 31일, 훈민정음 발표 483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그 때 조선어 학회의 모인 여러 분들의 합의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여, 그 이듬해 1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곧 "조선 말 큰 사전"이 되어 날 보급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보니 어떠한 일이든 무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돈이 없었고 둘째 적당한 조선말과 통일된 맞춤법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의 일이 전무 조선어 학회로 넘어 오게 되어, 조선어 학회에서는 그 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밑에서 그 목적만은 꼭 지켜려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차곡

차곡 일을 해 갔던 것입니다.

한 때는 눈이 필립 날리고 한 바퀴가 장 사이프러스며오는 날로도 없는 밤 안개에서 일을 하던 그 때의 곤란은 말할 수 없었나 합니다.

그러하여 1972년에는 사전 원고로 대강 집미되었고, 1973년 3월에는 피로소 그 당시 어렵고 어려운 소위 출판 되기까지 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책정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하여서 나중에는 조선 말과 글자 없애려고 갖은 계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어 학회에서는 하루 바빠 조선 말 사전을 내 놓려는 조급한 마음으로 원고의 일부분을 인쇄소와 넘기어 일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일과 학마의 손은 기어 조선어 학회에까지 뻗어, 공인한 표정으로 4275년 10월에 간부 및 편찬원 전부와 회원의 대부분이 한글 남도 통일 경찰서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조선어 학회 사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겪게되며, 모든 문서와 사전 원고까지 증거물로 그 분들과 함께 훈원으로 가지 가게 되었으며, 다시, 한문 형부소

로 넘어 간 뒤에는 이 유제, 한술 두 선생님은 드디어 옥중에서 돌아 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동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일 두 분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던 분들이 제 일심과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上告)하게 되었으므로, 증거물로 사전 원고를 선출로 보내게 되었던 바, 며칠이 못 되어 해방의 날 8월 15일을 맞이 하였던 것입니다.

은 민중이 해방되자, 옥에 갇혀 계시던 선생님들은 할음으로부터 즉시 서울로 올라 오셨습니다. 그러나 꿈에도 잊지 못할 사전 원고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망으로 죽은 중 그 때 9월 8일 서울 징기장 광고 안에서 찾게 되었으나, 10년 동안 쌓고 쌓은 공이 헛되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갇힌 그 때 죄인들이 풀려 해위 없애 버렸던들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모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날 원고가 온 상자를 푸르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아 같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 반가운 소식

★우며 조선어 남은 세계적 음악가 안 익애(安 益 齋)씨는 일본어 서판아(西班牙)에서 활약하고 계신 공헌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건너 가서 연주회를 계획하기로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조선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지급 정복 중 5년의 재학 중인, 최윤원(崔 潤 元) 씨는 2시간 15분 37초라

는 해방 후의 조선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였다.

★서울 중앙 방송국에서는 그 동안 조선 사람 기술자를 모두 모아 가지고, 500 컷트(W) 인과 (短波) 방송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단과 송신 장치가 완성되는대로, 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선가(朝鮮歌) 단과 방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된 조선의 소리가 세계 구석구석에 울릴 날도 그리 멀지 않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 밖에 있는 봉원사(奉元寺)에서는, 우며 조선 민중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궁 미술(古宮 美術)과 옛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도록, 커라망고 훌륭한 절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해방 기념관"을 삼으려고 공사를 해오던 것인데, 이번에 피로소 완성되어, 지난 10월 18일 성대히 낙성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역사 소설

# 이순신장군

박태일 지음 · 김기창 그림

## 제 15 장 노랑 배전(羅藍海戰)

### 一. 뇌물(賂物)과 진 도둑(陳都督)

임진년(壬辰年)으로부터 해로 일곱 해 동안은 두고, 삼천리 강산을 풍으로 흔들기 좋고, 이천만 생령(生靈)이 도탄(塗炭) 속에 빠졌던 그 크나큰 난리도, 마침내 끝나는 날이 있었다.

일본의 관백(關白), 중신 수길(豐臣秀吉)——이런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張本人)인 중신 수길이가 죽은 것이다.

죽지 군사를 견우어 돌아오는 영(令)을 받고, 조선에 머물러 있던 왜명(倭名)들이, 이제 싸울 뜻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오직, 한시 바빠 저의 본국으로 돌아 갈

마음만이 살-관을 팔았다. 그러나 저의 본국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서는, 아무런 힘으로도 양양(茫茫)한 선해

(玄海)바다를 건너야만 한다. 그러나 그 바다에는——그 바다에는 장군 이순신의 거느리는 조선 수군이 잘 있을 때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는 조선 수군은 밭 갈기 무섭다. 어찌 저런 사납다. 그와 같은 말하면, 반드시 대가 떨어지고, 그와 더불어 싸우면, 반드시 사납다 상한다.

임진 해전(壬辰海戰)이 일어난 뒤로, 주로 해전(玉浦海戰)·양포 해전(唐浦海戰)·한산 해전(閑山海戰)을 비롯하여, 대소 수십, 전(大小數十戰)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鳴梁海戰)에서는, 삼백 삼십 여척의 전선을 가져오도 이 장군의 열 두 척의 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가



음에 부서진 전전이 수 십  
석이요, 살에 맞고 물에 타  
져 속은 군사가 사소한 명  
이다.

아무때도 무사히 파다를  
전년말 도미가 없다.

최상 소서 행장(小西行長)  
은 여러 날을 이리 생각하  
고 저리 궁미한 끝에, 마침내  
얼나라 수군 도독부(水軍都  
督府)로 가만히 일사(衛使)  
를 보냈다. 도독 진 원에게  
은근히 화친(和親)을 구하  
고, 저의 몸속으로 돌아 갈  
뜻짐을 일자는 것이다.

수일 전부터 최상의 일사  
가 우리 군사의 눈을 기어서  
도독부(都督府)를 드나 들기  
시작하는데, 귀를 익혀, 금  
은(金銀)·총검(銃劍)·마필  
(馬匹)·주육(酒肉) 따위 외  
물(賂物)을 그쪽 그쪽 실은  
마마며 때가 열성 도독부 안  
으로 끌어 갔다—

이 정보(情報)를 받고, 우  
미 이 술선 장군의 머리에  
수름살이 서서기 깊어졌을  
때; 어느날 아침, 진 원이  
장군을 전중(陣中)으로 찾아  
와, 마침내 힘을 잃더니, 최  
영들의 돌아갈 짐을 더러 주  
라고 간절히 청한다.

참으로 뜻 밖이었다.

“최영들의 돌아 갈 짐을  
더러 주머니요?”

장군은 이렇게 함 마디 외  
물저 않을 수 없었다.

진 원이라고 하는 자말이,  
본래, 반육(負慾)이 많은 장  
은 장군도 이미 잘 알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세 악부  
며 최상이 갔다가 바치는 저  
물에 눈이 어두웠기로서, 수  
군 도독(水軍都督)의 위신  
(威信)과 체면(體面)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세 말로 진 원의 세  
임을 잃어 이러한 심을 하  
라고는, 과연, 잘못으로서  
는 예수(豫測)하지 못하였던 것  
이다.

진 원은 잘못 대답을 못하  
고 머뭇거리다, 상군은 다  
한 번 외쳤다.

“최영들의 돌아 갈 짐을  
더러 주머니요?”

“네.”

진 원은 눈이 부시기마  
도 한 듯, 장군의 얼굴은 마  
로 시어다 보지 못하고,

“최상이 화친(和親)을 청  
하니, 몇 짐을 잃어, 그대  
로 돌아 가게 하여 무심시  
다. 같이 갈 짐을 막는다  
면, 저희도 속가로 할약을  
하고야 말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 편에도 유익함  
이 없을 것이 아니겠소?  
이 장군! 우리, 그대도  
돌아가게 하여 무심시다.”

도무지가 최상이 시키는  
말이었다. 본 정신을 가지고  
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  
이었다.

장군은 그러한 그를 잠깐  
동안 어이 없이 바라보다가,  
정세(正色)를 하고 말하였다.

“노야(老爺)! 그제 무슨  
말씀이요? 수명을 장수편  
사람은, 그제 마음이나 써  
실 것이여, 화친을 주장하

는 것은 음지 못한 일이  
요. 비유기, 수미와는 함  
지 허를을 이겨 못할 원수  
인 회칙을 그대로 놓아 보  
내다니, 그것이 원민이나  
한 말씀이요?”

진 원은 낮 빛을 붉히며,  
한 마디 더꾸도 못하고, 그  
때도 돌아 갔다.

그 이튿날이다.

이편에는 최상 소서 행장  
에게서 직접 사신이 왔다.  
얼나라 장수에게 하던 비롯  
으로, 장군에게도 총검(銃  
劍) 따위 외물을 바치고, 몇  
짐을 일러마, 은근히 청을  
드미 보자는 것이다.

장군은 일 가에 쓴 웃음을  
더우고, 이를 물며했다.

“입전년 이 때로, 수미가  
너희 최상에게서 배받은  
총과 같만 하여도, 이루,  
다 할 수가 없는데, 이진  
또 받아서 무얼 하겠나?  
어서 도모 가지고 가지라.”  
사자(使者)는 낮 빛을 붉  
히고 물며 잘 막아 없었다.

그날 저녁이다.

진 원이 사람을 보내어,  
장군을 도독부드 청한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머노?……)

하고, 사과를 말야 가 보  
니, 진 원은 장군을 보자,

“이 장군! 나는, 곧, 남  
해(南海)로 가서, 그곳에  
있는 회칙을 처고 온가 하  
오.”

하고, 안의 없는 소리를

한다.

바로 속이 편안히 들어다  
모이는 소리다. 어디까지든  
소서 행장의 의성을 붙여,  
쇄빙의 돌아 갈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장군은 말하였다.

“남해로 가시겠다고요?.....  
남해에 있는 것은 왜적이  
아니요?”

진 편이 가 되풀는다.

“왜적이 아니라니, 그러면  
무엇이요?”

“왜적이 아니라, 왜적에게  
사로잡혀 가 있는, 불쌍하  
고 가엾은 우리 조선 동료  
들이요.”

“그러니, 왜적이 아니요?”

“아——, 어째서 왜적이란  
말씀이요?”

“본래는 조선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렇듯 왜  
적에게 붙어 비탄 자들이  
니, 왜적과 일반이지 무서  
요? 나는 기어코 가서 처  
고 을 생각이요!”

진 편이 그렇듯 고집하는  
것을 보고, 장군은 참다 못  
하여, 마침내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노야(老爺)! 그게, 대  
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  
요? 애초에 장군이 귀국  
황제의 명을 바꿈어 우리  
나라로 오시기는, 전학,  
쇄빙을 도맡하고, 우리 백  
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귀  
한이 아니요? 이제 장군  
이 눈 앞에 있는 왜적은  
그대로 버려 두고, 도리어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죽  
이려 하시니, 이는 결코  
귀국 황제께서 장군을 우  
리 나라로 보내신 본의(本  
意)가 아닐까 하오?”  
그 말에 진 편은 팔관 노  
하였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장  
검(長劍)을 빼어 손에 들고  
“보아라! 이것은 우리 황  
상(皇上)께오서 손수 내게  
내리신 장검일다! 네, 아  
느냐?”

그 형제가, 급시에 목을  
내려 칠 듯 하다.

그러나 장군은 태연(泰然)  
하였다. 죽음을 두려워 하  
고, 어이 나라를 전치며, 동  
포를 구하여 볼까보냐?

장군은 신색(神色)이 자악

(自若)하여,

“한 번 죽기가 무에 아깝  
겠소? 죽이려전 죽이지구  
요. 그러나, 나는 대장  
몸으로서, 간단코 왜적을  
버려 두고 우리 동포를 죽  
일 수는 없으니 그리 하지  
오!”

진 편이 아무리 꾸짖고 일  
려나, 장군은 결코 이에 굴  
(屈)하지 않는다. 진 편은  
더 어찌하여 온다는 도리가  
없었다.

### 二. 노랑 해전(靑梁海戰)

—공(靑)한 위는 고양이  
를 본다.

왜적은, 마침내, 우리 수  
군과 싸우려라도 기어히 파  
다를 건너기로 궁세 뜻을 결  
하였다.

무술년(戊戌年) 동짓달 열  
이 드렸날이다.

밤이 들기를 기차피어, 왜  
선 수백 척이 왜포(倭砲)  
를 쏘아고, 사천(泗川)을 떠  
났다.

소서 행장과 그 수하 왜병  
들이, 도저히 예상을 넘고  
나를 도리가 없는 것을 알  
고, 사천(泗川)지방에 있던

### 각도의 이름



지금은 제주도까지 넓  
어서 14 도가 되었으나  
해방 전에는 18 도였으  
며, 또 21년에는 8 도  
로 나뉘어 있었습니  
다. 그런데 각도 이름은 그  
도 안에서 그 당시의  
이름 가는 고을 이름의 따

뜻과 한 자씩을 떼어서  
지은 것입니다.

- 함경 도 — 함흥(咸興)과 경성(鏡城)
- 평안 도 — 평양(平壤)과 안주(安州)
- 황해 도 — 황주(黃州)와 해주(海州)
- 강원 도 — 강릉(江陵)과 원주(原州)
- 충청 도 —

- 충주(忠州)와 전주(淸州)
- 전라 도 — 전주(全州)와 나주(羅州)
- 경상 도 — 진주(鎭州)와 삼주(尙州)
- 경기 도 — 이것만은 서울을 모시고 있는 육합을 뜻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해저물이, 그렇듯 물의 위로  
로 가서, 그 부리들은 배에  
실고, 그대로 바다를 건너,  
저의 본국으로 돌아 가자는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저  
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탐방  
선(探望船)으로 하니, 머릿  
이 첩보(探報)를 수중에 넣  
은 이 순신 장군은, 즉시 사  
람을 도둑부르 말라며, 이  
일을 신 변에게 알려주고,  
군사들을 모조리 배 구르게  
덕된 다음, 이날 밤 이경 二  
更——지금의 오후 열 시)  
에, 전지(陣地)를 떠나, 느  
알(露臺)바다로 향하였다.

모름 지안 말 빛이 하늘에  
교교(皎皎)한데, 동짓달 바  
다 위에 밝 바람이 차다.

바람을 따라 이는 물결—,  
그 험한 물결을 가슴으로 때  
쳐며, 우리 전선(戰船)의 장  
엄(壯嚴)한 대열(隊列)은 앞  
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배 앞도 깊어 삼경  
(三更——지금의 오후 열 두  
시)——, “수짜기(帥字旗)”  
를 휘날리며 함 바다는 밝어  
는 “천자선 제 1호(天字船  
第一號)” 위에 이 순신 장군  
은 손 벗고 양치하고 흥도  
명(聲) 위로 올라 갔다.

바다 위의 함 기운이 배가  
저러게 전에, 이 때, 말은  
정(正)히 천심(天心)에 와  
있다.

장군은 단정히 부를을 끌  
고, 항(倉)을 떠난 다음에,  
마음을 정성스비어 하여 하

“이 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엄제될 소설

소년 삼국지

박 태원 선생 지음·김 기창 선생 그림

“삼국지(三國志)”는 삼국 고  
대의 유명한 소설로 사마기서  
(四大奇書) 가운데 하나입니  
다. 어찌 본고 아나 조 (曹  
操)나, 유 비(劉備)나, 관 운  
장(關雲長)이나, 또는 제갈 말  
(諸葛亮)이나 하는 이름을 들  
으면 힘이 있는걸 알입니다.  
한(漢)나라 말년, 한양 천자가  
어저어올 때, 수많은 영웅 모  
집들이 일어나 서로 힘을 겨루

고 제국을 이루는 판으로 통쾌  
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 분은 역사 소설  
“이 순신 장군”을 통하여 잘  
아시는 한 미현 선생께서, 알기  
쉽게 재미 있게 두어 주시기도  
되셨으며, 그리고 그림은 역시  
김 기창 선생이 그려 주시기도  
되셨습니다. 오는 1월피부터  
실렸사오나 1월피부터 기마리십  
사오.

같이 벌었다.

“안약, 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오면, 이 같은 비  
극 속사라도 다시 한(恨)  
이 없겠나이다!”

째저이 이를 없는 군사들  
일스키어 삼천리 강토(疆土)  
를 그 수(隨)한 말굽 아래  
짓밟기, 무릇 일곱 해——,  
산천(山川)도 그로 힘아 모  
양을 고였거던, 어이 민생  
(民生)이 그 사이에 흥도 온  
절기를 일으키?

수 많은 생명(生靈)이 흑  
은 죽고, 흑은 상하고, 온  
나라의 살림살이가 동으로  
흔들리며, 문화(文化)가, 경  
제(經濟)가, 산업(産業)이,  
모두가 깨어져고 없어졌다.

함께 하늘을 이저 못할 힘  
수——

이제 이르며, 저의 형제가  
궁하고 힘이 다하면, 거짓

화산을 칭하고 돌아 가더하  
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놓  
아 보내 올을까보나?……  
장군은 이런 싸움에 받드  
시 속기로서 마음을 걸하  
였다.

이날 밤 사경(四更——지  
금의 오전 두 시)에, 적과  
우리는 마침내 노망(露梁)바  
다에서 만났다.

보아라!·용제사 이 순신  
장군의 먼 배들. 그 뒤  
위에 나무겨는 독전기  
(督戰旗)를——  
“凡軍臨敵不用命者處斬”  
(무릇 군사로서 적에 임  
하여 명을 바르지 않는  
자는 참하미라!)

저의 선대(船隊)를 바라고  
손발 같이 저지 들어가

는 우미 수준, 우미 수  
 준.  
 처마!  
 무서과!  
 두질미라!  
 어찌미이 울리는 북 소리,  
 나팔 소리,  
 포화(砲火)는 터지고, 사  
 석(矢石)은 달린다.  
 달리는 서석, 터지는 포화,  
 깨어지는 쇠신, 무서지는  
 쇠신.  
 쇠신에 불이 붙었다, 쇠신  
 이 불을 뿜는다. 무서  
 세 처, 다섯 처,  
 불은 번다, 배에서 퍼프,  
 불은 번진다, 배에서 퍼  
 프, 열 처석, 다섯 처  
 석, 다섯 처석, 스무 처  
 석,  
 들렸다!

모함 천다!  
 울부짖는다!  
 아우성 소리에 바다가 끓  
 는다, 물결이 사뭇 하늘  
 을 찢는다,  
 하늘을 찢르는 물결이 파  
 람을 끌었다, 바람을 끌  
 려다,  
 물결이 끌려 온 파란이 물  
 의 기세를 몰는다, 기세  
 를 몰는다,  
 불은 번다, 배에서 퍼프,  
 불은 번진다, 배에서 퍼  
 프, 파혼 처, 천 처, 백  
 처,  
 모아라! 쇠신이 머리를  
 들렸다,  
 모아라! 쇠신이 깃대를  
 달았다,  
 도망하는 쇠신, 도망하는

쇠신, 백 처, 백 처, 또  
 백 처,  
 쇠신을 잡아라! 저 배를  
 잡아라!  
 달아나는 쇠신, 달아나는  
 쇠신,  
 달아나는 쇠신의 뒤를 쫓  
 아, 최강구미가 날른다,  
 파다 뒤를 날른다, 용성  
 (龍星)같이 날아 들어  
 댈진배가 적된다,  
 최강구미에 달린 기마단  
 최사술,  
 사술을 넘어라! 넘어 세  
 어라!  
 물어 간다, 쌍(槍)!  
 말아라, 말!  
 겁 없이 먹은 눈!  
 단말마(斷末塵)의 미명(昧  
 冥)!  
 처령이 배를 잡고, 거꾸러



전다. 피열이  
두 동강에 나  
서, 불에가 영  
어진다. 수 없  
이. 수 없이.  
수 없이.....

### 三. 장군의 전사(戰死)

싸움은 지금이  
한창이었다.

이 호실 장군은  
사석(矢石)이 비  
오듯 하는 가운데,  
대 위를 높이  
서서, 불소 폭뢰  
를 손에 쥐고 싸  
움을 계속하였다.

(합리, 하늘을 가시 못할  
일수——, 네, 잘 할 줄이  
라 살펴 보일 줄이 있소  
라?.....)

싸움 끝이 앞으로 앞으로  
나가며, 장군은, 육으로 수  
없이 죽었다.

“나가라!”

“죽어라!”

“저러!”

“부서라!”

남편 장수 아래, 어아, 약  
한 군졸이 있으라? 우리 군  
졸 쟁이, 재적이, 제정 일  
을 말한다. 한이 죽을 만  
한다.

싸움은 그 밤이 다 하도록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침소로, 애달픈 일  
이다.

장군이 불소 진(陣)거리에  
서서 한창 싸움을 계속할  
데, 날아드는 송알이 맞을  
다! 그의 왼편 옆구리에가



끝이 되었다.

장군은 그 자리에가 그대  
로 쓰러지고 말았다.

때이 그 곳에 모시고 있던  
사람은, 장군이 맞이를 친  
(鎗)의 조가 찬(鎗)이다.

“아저씨!”

“아저씨!”

두 사람은 조스라치게 놀  
라, 허우적 일아 울며, 장군  
을 안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장군은 손을 들어  
이를 멈추고,

“방해(防解)를....., 방해  
를.....”

찬(鎗)이 장군의 뜻을 알  
아사리고, 곧, 곁에 있는 방  
패를 들어, 그의 몸을 가미  
워 주었다.

장군은 자기와 다시 일제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는 동동한 눈을 들어, 아  
들과 조가의 얼굴을 보았스  
나, 그의 두 눈은, 이미 불  
전을 볼 필요도 없었고 있었다.

“새끼야!”

장군은 가쁜 숨을 모으며  
머지막 땅무를 지었다.

“싸움이, .....싸움이 한창  
급한 이제, .....부디, 나  
죽었다면 말을 길아라!”

저수 이, 한 바야 부악을  
날기고, 장군은 그 자리에  
흔히 “꿈쳤다, 때는 무술년  
(戊戌年——서력 1598년)십  
일, 일 삼, 구, 일, 향년(享年)  
이 64다.

뜻밖의 말을 당한 두 사람  
은 금시에 눈 앞이 캄캄하였  
다. 하늘과 땅이 일시에 무  
너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비록 망극(罔極)하  
기는 그저 없어도, 두 사람  
은 감히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한다.

만일, 당시에, 함성(發聲)  
을 하였다가는, 친 군중(軍中)  
이 그의 정동(驚動)일 것  
이다. 제적이 이것을 알고  
보면, 그들은 반드시 이 몸

을 팔 것이다.

희(禧)와 환(莞)은 저급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환고, 곧, 장군의 시체를 안아서, 선실(船室)로 모셔왔다.

이것을 아는 이는 그를 두 사람 외에는, 선실에 남아 있던, 장군의 종 금이(金伊) 뿐이다.

두 사람은 다시 배 위로 나아갔다.

뒤엔히 밝아 오는 새벽 바다 위에, 싸움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죽기로 항거하는 해명의 기세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다. 희와 환은, 돌아간 장군을 대신하여, 열방기를 두르고, 북을 쳐서, 우리 군사의 사기(士氣)를 북돋았다.

날은 이제 아주 활짝 밝았다.

그러자 문득 보니, 수 십척 왜선이 멀리서 도둑 선원의 탄 배를 에워, 그 기세가 심히 위태롭다.

희와 환은 배를 급히 몰아서 그편으로 나갔다.

달아 오는 배 위에, “수짜기(帥字旗)”가 나부끼는 것을 보자, 왜병들은 깜짝 놀랐다.

“이 순신이다!”

“이 장군이다!”

왜선은 곧 해음을 풀고, 뗏머리를 돌리며 달아났다.

이리 하여, 진 원은 신포 아슬아슬한 교방을 넘기어, 꼭 죽을 줄만 알았던 목숨이 남았다……

싸움이 끝난 것은 이날(동짓달 열 이흐엿날) 저녁이다.

이 싸움에, 적은, 배 수백 척이 깨어지고, 군사 수천 명이 죽었다. 왜장 노진희홍(鳥津龍弘)이는 저수 남촌에 오십이 척을 이끌고 달아나고, 소서 행장(小西行長)이도 잔선이 몸을 마시 멀리 바다 밖으로 도망히어 버렸다.

7년 동안은, 끌어 오던 입전해판도 이로써 끝이다.

노랑(路梁)바다에서 왜선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자, 멀리서 수군 도독 진 원은, 곧, 배를 몰아, 이 순신 장군의 탄 배를 비하고 왔다. 그는 한시 바에 장군과 만나서, 서로 진승(戰勝)을 의미(賀禮)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까이 이르자, 진 원은 소리쳐 불렀다.

“이 장군! 이 장군!”

그러나 그 소리에 응하여 뗏머리에 나선 것은, 이 장군이 아니라, 장군의 조카 환(莞)이었다.

환은 뗏머리로 나서며 북을 치며, “숙부(叔父)계선……, 숙부계선 돌아가셨소이다!”

겨우 말을 마치고, 북을 놀아 준다.

“뭐? 돌아가서?”

진 원은 놀라고 망국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뒤로 엎들어가기를 세 번이나 하였다.

“장군은 돌아가신 뒤에 내 목숨을 구해 주셨고

나! 아! 장군! 장군!”

진 원은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팡 팡 치며 통곡하였다.

장군의 진사(戰死)를 안 군사들은 모두 땅을 치며 울었다. 먼나라의 수만 군사들도,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진장에서 장군의 죽음을 서러하였다.

영구(靈柩)가 고금도(古今島)를 떠나 아산(牙山)으로 향하는 날, 선도(沿路)의 백성들은 남녀노유(男女老幼)가 없지, 모두 울며 그 뒤를 따라왔다. 유성(哭聲)은 천리에 떨치고, 슬픔은 이 나라 강산을 눈물로 적시어 놓았다.

나라에서는, 장군의, 그 비결에 없이는 공훈(勳功)을 평가하여, 효충장의 서의 형의 선무공신(効忠仗義通毅協力宜武功臣)과, 대장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원사(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와 덕흥부원군(德興府院君)을 추증(追贈)하며, 시호(諡號)를 충무공(忠武公)이라 하고, 뒤에 다시 영의정(領議政)을 가증(加贈)하였다.

—끝—

호를 거닐할 때마다 세이 있고 유익이라 하고 수만 목자의 현환을 받아 오던 “이 순신 장군”은, 이것으로써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장군은 비록 저의 송알에 대 아 배 위의 이름으로 쓰여졌으나, 장군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전정철)

# 동해바다 멀리 있는 울릉도를 다녀 와서

서울 국립 과학 박물관 석 주 명

조선 산악회(朝鮮 山岳會)에 속한, 이런 이름(1947)의 울릉도에 학술 조사대(學術 調査隊)를 파견(派遣)하였는데, 일행은 80 여 명이었다. 나도 그 중 공물 단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여, 8월 10 일에 서울을 떠났다. 나는 대구(大邱) 사범 대학에서 열리는 학술 강연(學術講演) 때문에, 그 날 아침에 먼저 해방자(解放者)로 떠났는데, 이 처음으로 라는 해방자호의 표를 찾았을, 몇 날의 고를 차나 탄 듯한 기분이었다.

저녁에 대구에 도착하니, 대구 산악회의 여러 분이 마중 나와 주었고, 함께 환영회를 열어 주었다.

이튿날 강연회에서는, 어떤 선생은 허산 이야기도 하시고, 석불 이야기도 하시지만, 나는 "산악(山岳)과 곤충(昆蟲)"이란 제목으로 산악의 문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저녁에, 뒤에 온 전 대원(隊員)들과 함께, 대구를 떠나 포항(浦項)에 도착한 것은, 밤도 늦은 때였다. 일행이 여관에서 하루 밤을 쉬고, 다음 날 새벽에 나와서, 우리 나라의 해군이라고 볼 수 있는, 해안 경비대(海岸 警

備隊)의 대원(大田光)이란 90 여 명의 가신으로 포항의 항구를 떠나, 울릉도로 향할 것이었다.

해위 크기에 비해서, 우리 일행의 사람이 많아서, 서울 우리 지지 않게 걱정했더니, 고맙게도 날씨가 좋고, 물건이 간결하여 다행이었다.

일행에는 대학 승상이 누른어나게 되고, 그 외에도 유명하신 선생님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사망한 땅이 안 보이는 넓은 바다에서, 배가 첫 걸 함에 안되는 기쁜 잠만 취하, 이 곳서는 물은이 깊은이의 구별도 없이 모두 어떤이의 마음과 같이, 천진스럽게 지냈다.

그러나 오후 두세 시쯤에는, 배가 약간 흔들려서 쉴 때는 선생도 몇몇 분 보이었다. 그러다가 저녁 6시 경

에, 울릉도의 서술인 도동(道洞)에 도착하였다.

일행이 상륙하기 전부터, 삼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부(埠頭) 가까이 많이 모여서 환영을 한다.

바다 멀리 북 떨어진 섬 사람들은, 이 섬이 전 후로, 처음으로 마지하는 서울 선생님들이라고, 여간 반가워하지 않는다.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을 조사하러 온 것이니, 먼저 이곳의 풍토를 대할 때, 반갑지 않은 이가 없다.

우리들은 배(隊)로 나뉘어서, 각각 안배를 받아 숙소를 정하였다. 바다가 야무리 잔잔하였다고 하여도, 준비했던 점심 밥을, 배에서 기분 좋게 먹은 사람은 없었다. 숙소에서는 곧 정성을 다한 저녁 상이 준비되어서, 점심을 굶은 여러 사람은 곧 상에 둘러 앉았다. 일행의 대부분은, 먹지 않고 두었던 점심밥을 꺼내서 먹고, 부족한 분량만을 더운 밥으로 보충(補充)하였다.



등요 코룩 코룩 밤새도룩 권 러 응

참새는 참새애기  
제일 귀엽고,  
참새는 참새새끼  
품에 안고,  
코룩코룩 밤새도룩  
자고 지고.

암탉은 암탉애기  
제일 귀엽고  
암탉은 꿩아리들  
품에 안고,  
코룩코룩 밤새도룩  
자고 지고.

엄마는 일똥애기  
제일 귀엽고,

엄마는 일똥애기  
품에 안고,  
코룩코룩 밤새도룩  
자고 지고.



(그림·권 의환)

식량이 특히 귀한 때요, 머  
우기 솔물도는 도면의 반년  
식량은, 혼트르우의 화제 와  
야 되는 곳이다. 우리들은 처  
음부터 턱을 짓는, 섬 안에  
들어 와서는 조금도 자지 않  
기고 있던 것이다. 쌀도 우  
리는 충분히 가져다 갔었고,  
솔물도를 떠나 돌아 올 때는  
얇은 쌀은 여러 말쯤, 섬에  
놓고 온 것이었다.

그 이튿날, 8월 19일은,  
쉬는 날로 정하고 부근을 조  
사하기로 하였지만, 나는 무  
권수와 함께, 섬 안에서 제  
일 높은 성안봉(聖安峯-98  
4미터)에 나뭇을 잡으며 갔

다가 짐을 짐 뭉 풀어, 안에  
서 하루 밤을 잔 관계로 20일  
새벽에 시에 떠나는 때에  
도 미치지 못하여, 죽교(獨  
橋)에도 가지 못하였다.

21일은 오전에 부근을 조  
사하고, 오후에 동쪽의 3만  
원 우리 세 사람은, 식물의  
B안원 암학 대략자와 같  
이, 의학 반과 함께 배로 도  
동(道洞)을 떠나, 이 섬에서  
들쳐온 천부동(天符洞)으  
로 향하였는데, 도중 솔물도  
동쪽 해안의 훌륭한 경치  
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고,  
머우기 수봉 해협(開峰 海  
峽)의, 삼죽대암(三燭臺岩)

봉근의 좋은 경치는, 솔물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금강산(金剛山)의 경치  
와 견준다고 한다. 오후의 세  
명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죽교(竹橋)에 내려서 관송  
취경(昆蟲 採景)도 하고, 그  
곳의 명산인 삼의와 수악도  
맛 보고, 천부동으로 향할 작  
정이었으나, 예정보다 늦게  
떠나 시간도 없었으며너와  
카도가 세어서, 때도 떠날 수  
가 없다고 한다.

천부동에 내리서는, 그 곳  
서 머물러 의학 반과 작별  
하고, 우리 셋은 반은 나뭇  
물(羅里洞)까지 걸어올라가



에 변화하여 저  
같은 농도로  
되었다.

13일도 수  
의 7, 8 인의  
성분 반은,  
본래와 따로  
물을 유기로  
하고, 부근의  
산 기슭을 조  
사하고, 또  
앞산(卯峯)을

교 교정에 쌓 놓은 새죽 더  
미 위에서, 밤 바다에 수 없  
이 떠 있는 오징어 배의 불  
을 바라보며, 이 야기에 밤 길  
이 가는 것도 몰랐었다.

13일 이른 아침에 들이 온  
오징어 배에서, 오징어를 파  
서, 여기서, 말리는 광경을 구  
경하고, 또한 우에는, 부근  
에서 유명한 고악장 (高麗莊)  
이던 부석송 (累石塚)을 견학  
하고, 이 물계를 떠나려는 차  
에, 이 곳 국민 학교 교장을  
하다가 최근에 사지였다는  
진골원 (金塚) 같이 찾았  
었다. 금송 전에, 황도 중  
학교에서 내게 배운 사람으  
로, 찾게야 만나서 친친히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더우기 하루 밤  
을 그곳서 자면서, 내가 그  
곳을 떠나는 때까지는, 귀차  
일치도 못했으니, 웃으론 일

에서 제집을 하였다.  
저녁 늦게 남미봉에 도착  
하니, 그 밤의 보관원을 여기  
에서, 이 봉의 동회장을 만  
나 하루 밤을 지낼 준비를  
하고, 부근 한현 (涵源莊)  
은 무신기로 현수 "달로  
A 만 할로오 A 만"을 부르  
고 있었다.

우리는 이 섬을, 많은 사  
물이 합쳐져서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합쳐 설인봉까  
지까지는, A, B 두 반으로  
분수어, 화 수로 갈라진 것  
이었다.

그래서 A, B 두 반은, 서  
로 무전으로 연락하며, 도중  
에 있는 무전국까지도 연락하  
고, 따라서 서술까지도 연락  
한 것이었다.

각 신문지에 야미봉 합동  
통신으로 보도된 기사는, 바  
나우미가 이곳서 활동한 그  
 것이었다.

이 야미봉은 설인봉 북쪽  
에 있는, 도내에서 제일 큰  
강인 송림에 있는 무학인데,  
이 강에는, 본래는 화산의 과  
구 (大口)이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유명한 그곳의 수  
원지(水源地)에서 정습을 하  
였다. 이 곳의 물은, 질 (質)  
이나 양 (量)으로도 우수하  
고, 우적의 경계와 아슬미  
시 출물도의 명소마기보다,  
조선의 명소마고 해도 우고  
미를 아가 있다. 마침, 그 곳  
에 쓰였던 고사 (島司) 일평  
과 사멸하고, 수피는 해안으  
로 내려가, 부근의 송곳산  
(鎗山)과

우르르  
모고, 때  
수출까지  
하고, 현  
포 (玄圃)  
에 도착  
한 것은  
저녁 때  
였다.

밤은  
여관에서  
때 수있  
고, 참은  
학교에서  
찾는데,  
저녁 밤  
후에, 학



이다.

울릉도에는 대학 출신은 한 사람도 없고, 전문 출신이 여섯 사람, 중학 출신이 열 두 사람이라 한다.

이 곳서, 김군과는 더우기 그의 부친과는, 짐짐을 곱곱기 어더운 작질을 타고는, 대하봉(臺霞洞)으로 향하였다. 도중서 8번 사람들과, 스러 지나면서 인사를 하였다. 대하에 도착하고는, 이 섬에 와서 처음으로 보는 바닷가의 가는 모래에, 피임을 받아, 해수욕을 했더니, 물이 특별히 찬 곳이였다.

이 대하봉에서 남양동(南陽洞)까지는, 중간에 황토산(黃土坎嶺)이란 고개에 더 되는 고개가 있고, 두군

발대는 삼림(森林)이 구성되어, 울릉도의 옛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1 일엔 우미 생물 반은, 성인부를 남아서 도동으로 돌아 오기로 하고 먼저 떠났지만, 우미 생물 반이, 전일 에 산에서 작고 내려 온, 석문동(石門洞) 가까이 와서 는 비가 오기 시작하여, 우미 세 사람만 다시 일주도로(一期道路)로 나와서 왔고, 전 날과 똑 같은 길을 가 가는 생각해서, 울릉도의 최남단(最南端)인 가두봉(可頭峯)을 거쳐 왔는데, 그 때에 기에서 남양동을 지나 도동으로 향하는, 3번 입행이 안 배를 바라 볼 수가 있었고, 이 곳서 이한 여행 중 가장

기록할만한, 김나비의 아주 작은 명진 한 마리를 잡은 것이, 기념할만한 일이다.

25 일은 울릉도를 떠나기 전 날로, 정리를 위한 마지막 쉬는 날이다. 그러나 제 집에 역시 무척을 느끼서, 아 피의 추(雨)군은 실원봉을 석수정(石甯)과 함께 다시 오르게 하고, 나는 송전해(송 鎭海)군과 서굴(西谷)을 지나, 주사굴(朱砂谷)에 있는 문해 죽로(蓬萊橋)에까지 갔다 왔다. 역시 문해 무리가 있었던 모양으로, 저녁부터는 나는 불이 잠기 시작하여, 전의 정원이 없었다.

25 일 아침, 10 시 반에, 갈 때에 있던 대정관으로 울릉도를 떠났다.



문교 부 편찬 과 김 씨 태

### 지 구

#### 1. 지구의 모양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덩어리를 지구(地球)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 같이 생겼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땅 덩어리는 세상이나 나무 같이, 편편하게 생긴 것이며, 그 위에 공 같이 둥근 하늘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전에 말한 원구(圓球)는 생각은, 오랜 예전부터 사람

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기가 점점 발달하여짐에 따라, 지구의 모양이 편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가 공 같이 둥글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습니 다. 그 사람들이, 지구 모양이 둥글다고 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 니다.

(1) 높은 곳에 올라 갈수록 눈에 보이는 넓이가 넓어짐

니다. 만일 편편하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2) 남쪽에서는 북극성이 지평선(地平線) 가까이 보이 나, 북쪽으로 갈수록 북극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3) 바닷가에서 멀리서 물이 오는 때를 보고 있으면, 멀리 있을 때는 아래는 보이지 않고, 물때가 먼저 나타나, 가깝게 올 때, 차차 아래가 보입니다. 만일 지구가 편편하다면 멀리 있을 때나, 가깝게 있을 때나 같이, 한 눈에 다 보일 것입니다.

(4) 월식(月蝕) 때에는, 지구 그림자가 달에 비치는데, 그것을 보면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가 공



같이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플로루스라는 사람은,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먼저 자리에 돌아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루스는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몇 달 동안이나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모르던 새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인도 땅입니다. 그 후 마케톤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먼저 떠날 자리에 돌아 왔습니다. 이것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틀림 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여러 가지 기계를 써서, 자세히 조사한 때에, 지구는, 위에서 조금 들뜬 모양이, 옆에 조금 긴 공(球)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지름(直徑)이 약 12,700 km

둘레(周)가 약 40,000,000 km입니다.

여러 문-층에는 혹 이러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위에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바다도 있는데 어떻게 둥글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대답하겠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지름이 1m 되는 공 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8,840m)을 불과 2.7mm도 못되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은 0.2mm밖에 안됩니다. 지름이 1m되는 공에서 0.2mm나 0.1mm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산이 아무리 높고, 바다가 얕았더라도, 지구의 크기에 비교하면, 먼저 같이 작은 것이니, 백두산 같은 것이 몇 개 있느냐, 없느냐, 지구 모양에는 별다른 상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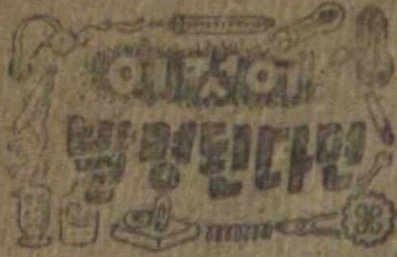
### 2. 지구의 운동

지구는 땅끝이를 돌때도 하고, 날마다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요전에 천구가 돈다는 이야기를 하었지요? 그것은 지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 까닭이라고 하였지요?

지구가 얼마만한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속도입니다. 그러나 마법이 수리는 그것을 조금도 모릅니다. 지구가 이렇게 서, 서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지구의 자전(自轉)이라고 합니다.

밤과 낮의 구별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까닭입니다.

지구는 또 해의 둘레를 돌습니다. 곧, 자전하면서 해의 둘레를 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구의 공전(公轉)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해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에 1년(365일 5시 48분 46초) 걸립니다. 삼월의 구별이 생기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 반딧불 같이 열 없는 전구

지금 쓰고 있는 백열전구(白熱電球)는 에디슨이 처음에 만들은 탄소선(炭素線)이 굵어 있는 전구에 비하면 많이 개량해서 써 훌륭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률은 그의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즉 전구에 들어 온 전력(電力)이 빛을 내는 것보다 겨우 3 정도 못되는 것이니, 가령 100 와트의 백열전구에 들어 와도, 그 중 10 와트 가량이 빛이 돼서 밝혀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개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어디까지이 속가 있어서, 백열전구의 공률은 이 이상 더 낮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과 맞은 열(熱)이 조금도 없이 그렇게 밝은 반딧불과 같은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반딧불 같은 찬 빛, 이것이 말로 인류의 큰 문제거리의 하나인데, 반딧불은 그런 습도 보르고 여름 밤만 떠돌 반짝반짝 내는 작은 불을 켜 가지고 돌아 다닙니다.

말 소리 라이프라이터  
말 소리 라이프라이터라고

나 할 아주 새로운 라이프라이터가 발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이 기계 앞에 이 말을 하면, 라이프라이터가 없어도 재질로 기체가 움직여서 말한 대로 문장을 짜아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속기자가 속기술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을 받아 써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정서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놓는 수도 있고 쓸데가 적어서, 또 속기자가 없으면 일이 안되니까 꼭 불편합니다. 속기술 이외에는 속설기에 속설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것 역시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편리하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말소리 라이프라이터가 발명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 인조 설탕

여러 분이 좋아하는 공자는 물론 어디까지 음식물 만드는데, 설탕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탕이란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화학자(化學者)들이 연구를 결과, 탄소(炭素), 수소(水素), 산소(酸素)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겨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달콤한 설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설탕을 식물(植物)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탄소나 산소나 수소나 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인지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합쳐서 설탕을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자꾸자꾸 발달되고, 설탕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야 말 것입니다.

## ★ 반가운 소식 ★ 좋은 책이 나왔다!

小松方定彦先生編  
동요집  
사랑의 선물

上下 두 권 · 값 · 45 원  
이제라도 읽고 세어 읽고 슬피 읽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소년(少年)의 생애 이념이든, 자국의 사랑이든, 나머지는 무어 주시고 가릴 사랑의 신화는 신동입니다.

## 윤석중 동요집

초 생 달  
값 50 원

말과 제와 같은 공심(良心)을 지니고, 온 세상에 선명의 풍요를, 이 어진 마음, 말과 글이 주는 노래와 화를 이다. 읽어 있는 이 책은 거의 온갖 어떤 마음의 영혼을 기쁨함이 될 것입니다.

주문하실 곳

博文書館

서울 · 羅路 2 街 88  
電話 京城 2023 番

서울

博文出版社

#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북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 17. 대문 앞에서

90분 서글름이 대문 앞  
에서 눈물을 젖보느라고 말  
서리는 살호의 정 뜻 뒤에  
화락 넘겨온 사람! - 울먹의  
정말사의 뒷사리에 살인 것  
이라고 살호는 가슴이 찢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  
사가 아니고, 최감은 노인과  
함께 잡혀 갔을 줄이 의심  
할 기호였습니다.

"오, 이렇게 안 잡혀 갔  
소?"

살호는 반갑고 불라워서  
크게 소리 치었습니다.

"잡혀다, 잡혀다." "여기 있  
으면 위험하니 어디로 일  
론 잡혀다."

그는 살호의 손을 잡아 잘  
긋하면서, 낮은 소리로,

"이 근처가 온통 형사 전  
지요. 빨리 잡혀다.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발근 위  
정했으니 조심해 가야 됩  
니다."

하면서, 두기가 먼지 앞에서  
달리 걸었습니다.

학계의 맞은편 마미 한  
마미가 꾸미곤 의방방이로  
살호의 가슴을 떠라는 것 같  
았습니다. 자기의 몸은 지금  
거기에서 떨어진 것 같으니,  
까마마면 두수의 외 발음의  
제 세리가 세이 뜻이 불잡된  
것을 생각하니, 한 말 한 걸  
음을 마치 머머기가 무서우  
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점점 더 저마 가는 사람이  
모두 자기만 눈에 보는 것  
같고, 심지어 꾸미곤 아이들  
까지 형사의 몸을 먹고 자기  
의 뒤를 일루기 델마 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근 두근! 살호는 아무  
말도 내지 못하고 학계의 귀  
를 말아 잡자고 걸어서 장화  
를 앞을 지나 비자 앞 계기  
이까지 무사리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면 안걸할까?"

비지마까지 나와서 학계의  
살호를 돌아다 보고 마모서  
힘을 잃어 걸었습니다.

"서래문 밖으로 가지"

살호는 서래문 밖에 걸었  
습니다.

"아니, 그리 가면 위험하  
니 전고개로 잡혀다. 그리  
속마 안걸하겠소."

두 사람은 걸어서 전고개  
로 올라 가면서, 소근소근  
공포하면 일을 이야기하였습  
니다.

살호가 장화로 뒤이 도  
행한 후, 온전와 학계의 외  
삼촌 노인들 마 같이 경찰의  
로 불잡혀 갔던 일, 그 후로  
장화는 곡마단 사람의 손으  
로 넘어 가니, 학생은 승가  
가 없어서 놀이 나온 일을  
살호는 속기 선원하게 알았  
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  
름 일은 술자가 곡마단의 손  
으로 넘어 가서 어디 떠있는  
지, 곡마단 일행의 장화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이었  
습니다.

"곡마단 사람들이 어디 떠있  
는지 그자를 알아 볼 도마  
가 없을까?"

살호가 혼자말처럼 중얼거  
렸습니다.

"알아 보기도 급하지마는  
서래마 타마가는 도마어



잡히게 될 것이니까, 우리  
지 한오를 올라 가서 친절  
히 이야기합시다.”

학생의 의견대로 두 사람  
은 좌수 옆을 돌렸을지. 절은  
걸 하면서, 습대판 끝쪽을  
끌어서 남한을 향하고 올라  
갔습니다.

벌써 순자는 중국 땅에 가  
있는 줄은 알지도 못하고……

### 18. 이상한 편지

꼭마단이 죽던 여관은 꼭  
마단 일행이 떠난 후로 돌  
시 조용하여졌습니다.

문 옆엿방에 앉아 있는 주  
인 내외는 침부름하는 하녀  
들을 데리고,

“그 수선스런 때들이 지  
금쯤은 중국에 가서 내렸  
겠다.”

“아이고, 그 팔뚝 두  
불거 맞기만 하면씩씩  
가 불쌍해 못 보겠어  
요. 어디 가시든지 그  
렇게 두불거 맞기만  
하겠지요.”

“그럼, 오숙환선 도  
망운 하미고 그랬겠니  
? 불쌍한일도 많지…  
…”

이런 이야기를 구거  
니 받거나 하고 있었습  
니다. 손님들은 각각 불  
일 보며 사간사이며, 이  
관치고는 세심 한가한  
대었습니다.

그 때 어떤 팔각한 살  
년의 한 분 불어 서이니,  
황급히 모자를 벗고,

“여기 꼭마단 일행……”

하고 말을 시작하다가 멈춰  
버렸습니다. 주인 여자가,

“예, 꼭마단 단장은 그제  
제 팔자로 중국으로 간다  
고 떠났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떠난 줄은 알니  
다. 내가 그 꼭마단의 사  
부원이니까요. 그런데 단  
장이 이 여관에 있어 버미  
고 간 것이 평양까지 갔을  
때에 생각이 나서, 그것을  
찾아 가려고 내가 도로 온  
것입니다.”

주인 여자는 그제야 까닭  
을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을  
마 오셔서 찾아 보십시오  
마는, 방을 그날 곧 소개  
를 하여도 아무 것도 없었  
는걸요.”

“예, 무슨 분기인데 한의  
눈에 안 띄우게 다마 주석  
에 갔이 두었었다니까, 찾  
아 보면 있겠지요.”

“그럼 올라 오셔서 찾아  
보지요.”

이윽고 친절하게 안내하  
였습니다.

같은 손님은 올라 불어 와  
서 단장 폐지가 있던 방의  
다마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습  
니다.

“별일일까? 분명히 다마  
에 넣었었다는데…… 잃어  
졌으면 손발 날 것인데…  
…응, 큰 일 났군……”

“글쎄요, 잃어갔으면 어  
안합니까.”

“혹시 편지가 두루 잃어  
버렸는지도 모르니, 여안하  
지만 다마의 밑을 좀 보  
겠습니다.”

하고 그 젊은 사람은 말마  
다에 떨어진 다마 밑을 일일이  
들어 내로 보았습니다.

“있군! 예, 있었습니다. 이  
것입니다.”

하고 젊은 손님은 방 한 구  
석 다마의 밑바구니에 끼어  
있는 납작한 봉투를 집어 들  
고 기뻐하며, 무리나게 나  
가서 구루를 건으며,

“살려줍니다마는 기차 서  
간이 바빠서 취워 드리지  
못하고 급히 갑니다. 자,  
이것을 그 하인에게 주실  
시오.”

하고 돈 10 원을 내어 종고  
급히 나갔습니다.

그 젊은 손님의 봉투를

고 이관 문을 나아가 이관  
관할 일을 물어 서거라, 거  
기서 기다리고 있던 살호가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으면서 펴서 나왔습  
니다.

“됐소, 겐이.”  
하는 그 젊은 손님을 물어  
학살 할 기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급히 하  
여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사원이 바  
빠로 죽어간단히……하고 우  
물우물하니라, 유인, 마누  
라가 먼저 죽마련은 그제  
때 서거해 살호로도 갔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선  
살호로도 잔 것은 분명히  
알았고, 그 마을에 수미가  
거주할 때로 하는 죽마련  
사람인데, 잃어 버린 것이  
있어서 편안까지 갔다가  
도도 왔다고 그러고 편이  
풀어 가서 기다려온 일일  
히……하고 조사하니라, 이  
종류가 있기야 아주 잃어  
버린 것이나 잃은 것이 없  
던 것이라고 하고 가지고  
나왔지……”

하고 한 기로는 그 등우를  
매대 주었습니다.

살호는 사기가 세워한 때  
도 물어 달아 살봉할 것을  
기뻐하면서, 바피 등우 편지  
를 보았습니다.

편지는 살호 봉선에 있는  
전승이관이라는 일문 이관  
수인이 시울 있는 죽마련 만  
상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속  
을 열어 보니라 잠말 수상스  
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  
다.

……그것은 등 재우를 고  
내었으니 잘 받아서 처치  
하고, 그러고 어느 때 살  
호로도 오는지 이런 것은  
확 15, 16 때라도 적어도  
셋은 가지고 와야 한다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  
다. 그것 두 재우……은  
무엇을 가짜러 한 말이고,  
15, 16 때로 셋은 무슨 소의  
인지 도무지 알은 짐작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편은제 이 편지  
는 잘 가지고 있기로 하  
고, 후술 말이라고 곧 살  
호로도 갑시다, 아까 이  
말기란 때로 그럴 내가 가  
서 네 서글은 갔고, 또 두  
를 것도 수미에 가지고 오  
리라, 당신은 거행 된  
그 여관에 가서 기다리  
고 계시요.”

하고 한 가호가 먼저일대 불

어 섰습니다.

그날 밤 살호 봉선을 향  
하고 시울 이을 떠난 기다란  
급행열차가 신촌역을 지난  
때에, 남의 눈을 피하는 형  
편 두 사람의 어두운 조그  
간, 정거장에서 슬피 올라  
왔습니다.

19. 봉선의 깊은 밤

살호의 봉선, 살호 사람들  
의 그 기로되고 요란하면 목  
감한(가미로) 밤이 풀어서 지  
공은 깊은 산 속 같이 정림  
하고 문도모지 같이 깊고하  
였습니  
다.

그러기 알아도, 깊숙하고  
송송스런 살호 사람들의 길  
가 상한 집이 지금은 무서운  
대위의 제 같이 정림한 방  
위에 무슨 영험한 물건을 쓴  
고 있으면 것 같이 용악해  
모였습니다. 그 속에 그림



자 두 개——그것은 상호의  
함 기호였습니다.

빌써 봉원에 온지도 사흘  
째나 되건마는, 원에 처음  
와 보는 곳이라 만나는 사람  
마다 중국어 사람 뿐인데, 그  
큰 말소리도 잘 배우듯 워자  
지필하게 떠드는 소리가 한  
마디 알아 들기는커녕 귀가  
시끄러워 정신이 어찌동경  
할 지경인고로, 마음대로 관  
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길로 그 비밀 편지에  
적혀 있는 전술이란 곳에 왔  
아 가서, 시저너 쪽 데로 방  
하나를 채우고 있으면서, 아  
무의 눈치를 보았으나 끝마  
단 단장이 이곳에 오는 법도  
없고, 이 집 주인이 출퇴할  
때마다 뒤를 돌아 보아도 수  
상한 것은 조금도 없었습  
니다.

“왜제 이놈들이 봉원으로  
아니 오고 아마 승르에서  
어디로 단 데로가 내버리  
나 앉았을까?”  
생각할 때에 상호는 눈이 감

합하였습니다.

공연히 희망을 걸고 이땅  
개 빈 곳까지 왔으니 꼭마  
단 실행이 이곳에 와 있지  
않고 단대로 갔으면 이 넓은  
중국어 땅에서 어디로 간 줄  
알고 순좌를 찾으러 간단 말  
릴가? 판사는 다 어그머웠  
고 불쌍한 순좌와는 형님 다  
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상호  
의 눈에는 눈물이 광성광성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기호  
역시,

“일시 다 들었고나!”  
하고 속으로는 낙심하였으  
나, 상호가 자꾸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딱하여,

“낙심하지 마세다. 여기까  
지 와서 낙심하면 될 수가  
있겠소? 여기서 며칠 기  
다려 보면, 그때도 무슨  
눈치가 있겠지요.”

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일이  
있었습니다. 상호와 기호가 여  
관 이층에서 저녁 밥을 먹고

마루 난간에 나와서 쉴노라  
니까, 아래층 주인이 방에  
이저러도 왔었던 짐들맡이  
흔은 신사가 또 찾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허탈제 경  
경잡은 노인사인데, 한 편  
다리가 고무 다리인지 꼭마  
단 단장을 걸고 짐들맡을 하  
면서 지팡이로 지탱하여 짐  
을 걷는 모양이었습니다.

상호는 함은지거나 누구거나  
이 집 주인과 상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적하여  
살피 보아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면초에 가는데 하  
고 일부러 내리 가서 주인  
방 옆을 지나면서 이야기하  
는 말 소리를 추적해 들으며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잠에 가깝게 가  
자, 이 때까지 듣는 사람 같  
이 기운 한 소리로 이야기  
하던 것이 꼭 그치고, 밖에  
말차귀 소리가 떨어 지나가  
버려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  
습니다.



“을지, 우선지 비밀 하는 일가 보구나.”

생각하고 살호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지나 권초에 다녀서 다시 그 장 일을 가깝게 스쳐 지났습니다. 말 소리는 여전히 아까와 같이 또 들렸었습니다.

“을지, 분명히 비밀 이야기다.”

하고 살호는 이층으로 올라와서 기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점음같이 신사가 누구인 줄을 알아낼 수가 있을까?”

하고 궁리궁리 하였습니다.

일부름하는 계집 하인을 불러 물어 보니까,

“가끔 놀러 오시는 바둑 잘 두는 노인세요.”

할 뿐이었습니다.

바둑 두는 늙은이면 이야기를 그렇게 비밀히 할 일이 없을 리인데 하고 살호는 도리어 더 이상히 생각하였습니다.

안락하게 머리를 썩히고 싶던 살호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아까 그 계집 하인을 불러서 돈 50 원을 주고,

“이따가 그 늙은이가 주인의 방에서 나오거든, 그때 일흔 짜를 뜨겁게 끓여서 찻잔에 담아서 그 늙은이를 잤다가 매접혀 주게.”

하였습니다.

—계속—

# 그림 속의 그림



호미로 마음 짓을 가래로 막는다

일이 커지기 전에 덮어버리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또 비어 두기 때문에 아주 일이 완개 되었다는 말. 무스럼 같은 것도 시작할 때 덮어 쳐놓을 하지 않으면 으레 고생하는 수가 있다.



죽은 자식 나이 세기

“암만 나이든 세 보편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을 전연히 알면서도 그래도 하여 몸을 일함이나, 지나간 쓸 데 없는 일을 가치고 맞추고 하지 말라는 뜻.”



좋은 일에는 남이요 못은 일에는 일가

일가는 일가로서 서로 권말하게 지어야 하는 것인데, 좋은 일이었다는 일가도 모른 채 하고, 아픈 일이 있을 때만 일가 권력의 힘을 빌려서는 사람이 있다.



웃는 빛에 침 뱉으라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 한탄 단단히 혼내려고 했으나, 지루에서 웃는 빛으로 사라하여 으면 인정상 용납 수로 혼낼 수도 없다는 말. 웃는 빛을 써서 때를 보는 일은 없다.

(그림·김 의환)



# 소학생·직물집

## 동요 눈

수원 배산동 2가 29 을 회 준

빨강개 빨강개 불타는 눈은  
귀여운 우리 집 도끼 눈이지.

파랑개 파랑개 물드면 눈은  
우리 집 흰둥이의 밤 눈이지.

노랑개 노랑개 고요한 눈은  
우리 집 옛보는 달님 눈이지.

까랑개 까랑개 똑똑한 눈은  
새문장이 동생의 예쁜 눈이지.



## 동요 우리 아기

서울 방신교 6 교 기 퇴

빵긱빵긱 웃으며  
아장아장 걷는 아기  
우리 아기 귀여운 아기.

옹아옹아 울다가도  
세근세근 자는 아기  
우리 아기 귀여운 아기.

보따르다 논면서  
무리무리 쓰는 아기  
우리 아기 귀여운 아기.



## 동요 아기 토끼

서울 일신교 5회 2 인 현 원

엄마 토끼 정중  
아기 토끼 짹짹

엄마 토끼 남남  
아기 토끼 남남

아기 토끼 엄마 용네  
잘모 션니다.



## 작문 교룡 사교

서울 정순교 4회 3 조 수 현

요사하 서울 거리는 사람들의 피 흘  
은 것 같습나리. 전하 아기는 불은 이던



고 자중사, 마루, 자필거 할 것 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넓은 도로가 그냥  
 사람 우성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  
 자칫하면 도둑의 치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난 공일날 집을 떠나, 설  
 푸른 자리는 아귀어덕을 찾아 가는 길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바깥 장덕을 알지  
 않을 때, 무슨 절친자는 모르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볼기에, 나도 그 사람들  
 속을 헤치고 가까이 절에 가보니, 이거  
 큰 일 났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순간 나는 감시 본 일이 감감해졌습니다.



아닌지 아니라 처음 생각한 대로, 도둑  
 열에 열을 삼들 함께 앞 채 보이는, 어떤  
 여자 아이가 피우실이가 되어, 동식한 모  
 양으로 쓰여져 있었습니<sup>다</sup>. 나는 즉시 거  
 기서 물러 나왔으나, 으면서 가만히 생각  
 터 볼라, 어떻게든 그 여자 붙들었지 몰  
 았습니다. 그 부모가 물어 얼마나 놀라하  
 십까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솟아나왔습  
 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나는 도둑마다  
 때니 미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좀체로 이  
 런 일이 없을텐데, 서울 거리는 참 무서  
 운 거리라고 생각했지요. 늦게 집에 돌아  
 와서도 자꾸만 생각나는 것은 그 일 밖에  
 없고, 거리에서는 전대로 조심하여, 교통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겼습니다.

# 영특지 아홉 상리기

★바른 대답 ★ 당선자★

**원래 문제**  
 시 준일에도 별을 남이 있다고  
 했다. 저금 수미는 고성을 하고  
 있지만 만으로 관할 남이 몰아  
 을 것이다.  
**풀이 문제**  
 불국사(佛國寺)

## 1 등

- 신 상호(서울 광성교 6년) 박 세영(계성 현정교 6년)
- 송 동원(계성 남산정 815) 정 현자(청주 서교교 5년)
- 유 기남(수원 신성교 5년)

## 2 등

- |                  |                 |
|------------------|-----------------|
| 장 김순(서울 광안교 6년)  | 이 재경(영동교교 6년)   |
| 적 상순(서울 광성교 6년)  | 최 영희(계성 현정교 6년) |
| 이 인호(서울 광안교 6년)  | 조 옥희(계성 현정교 5년) |
| 김 복순(서울 효제교 6년)  | 이 동화(서울 수운교 4년) |
| 정 윤정(서울 직선교 4년)  | 연 승원(공성 세이교 5년) |
| 장 개진(서울 의화교 5년)  | 윤 서원(계성 현정교 6년) |
| 박 원호(서울 대동교 5년)  | 이 기운(충남 초원교 5년) |
| 장 형원(계성 남산교 5년)  | 박 장순(부산 오성교 5년) |
| 이 영소(수원 신성교 5년)  | 김 우정(청주 서교교 5년) |
| 유 기남(수원 신성교 5년)  | 서 영현(서울 평과교 5년) |
| 박 은호(자미 부수 중앙교)  |                 |
| 이 현정(서울 광성교 5년)  |                 |
| 장 권희(서울 입신교 5년)  |                 |
| 안 찬희(서울 효장교 5년)  |                 |
| 염 신홍(충원 순주교 5년)  |                 |
| 이 승순(서울 부화교 5년)  |                 |
| 이 근수(강원연 화흥교 5년) |                 |
| 남 상원(원주 평원동 2년)  |                 |
| 김 형익(대전 계동교 5년)  |                 |
| 조 영옥(수원 신성교 5년)  |                 |

# ★ 크로스워드 풀기 ★

## 새 문 제

태	2 세	3 레	4 주	도
극	5 동	6 레		
6 기	7 생	8 하	9 소	10 락
	11 인	12 양	13 산	14 극
12		13 소	14 작	15
16		17 사	18 난	19 랭
		20 권	21 균	22 사

### [가로 푸는 열쇠]

- ①우리 나라 국기 이름.
- ②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한글을 만들어 내신 한글 이름.
- ③시골에 순사가 주재하여 사무 보는 집.
- ④이런에 양한이 아닌 보통 백성을 가르쳐 부르던 말.
- ⑤극장에서 필립을 둘러서 고여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가,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서 연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
- ⑥공기 기술이 많은 것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으나 사람에게 허부도 없어서는 안될 것.
- ⑦할아버지 손자의 있는 유명한 글.
- ⑧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의 일명.
- ⑨도장 대신 손가락으로도 찍는

제, 2점을 부르고 100점

- ⑩한문 글자를 모아 놓고 알맞은 뜻을 해석한 책.
- ⑪살던 집을 옮기는 것.

### [가로 푸는 열쇠]

- ⑫조선에서 제일 큰 집 이름.
- ⑬작은 땅을 향이라고 하는데, 작은 땅을 뭐라고 하나?
- ⑭기상을 관측하는 높은 대(臺).
- ⑮자기의 훌륭한 작품을 남에게 호소하는 것을 필탄이라고 하나?
- ⑯시를 서예를 부추는 뜻이 있는 산 이름.
- ⑰남의 것을 얻어서 놓아 주는 사람은 소작인. 그 땅을 필탄 땅은?
- ⑱왕과 궁에서 임금의 자미를 이을 왕자를 일컫는 말.
- ⑳보통 사람보다 키가 좀더 작은 사람.



○나는 "소학당" 편집실에서 제일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동인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소학당" 편집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은 작거나 크거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여러 분에게 알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소학당" 9월호에 "우리 과학 전람회"를 소개한 지동인 과학 교육 불우회 회장 이태관 박사는 "우리 과학 전람회"로 발표된 중, 실 차이를 없애고 여러 가지 재질 사용으로 과학을 시찰하고 오신다고.

○이달 주간을 지동인 선생님은 "경기 교육 전람회"의 심사원이 되어서, 전람회 지동인 선생님이 가셨다가 10월 20일에 돌아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주시는 지동인 선생님은 지동인에서 출판하고 선생님을 하시는게 어떤 것이 지동인의 출판 오셨다가 바로 내어 가셨지요.

○"소학당" 9월호 회장 그림을 그려 주신 지동인 선생님의 아드님은 이번엔 "우리 과학 전람회"에 기원 모형을 만들어 출품해서 지동인의 일전을 하셨습니다.

### 알려 드리는 말씀

이런 지는 인쇄소의 정전 등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늦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호 판으로는 쉬기로 하고, 그 대신 1월호 1월호는 특별 호로, 더욱 재미있게 꾸미는 상입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 있게 꾸미게 나올는지 1월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편집실)

우순 애기

### 맨 처음 정구 시합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서양 사립들이, 그 때 조선 정구의 모 관장을 소개해서 처음으로 정구시 합을 구경시킨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참 재미 있는 놀음이었죠" 하고, 실컷이 사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분이, 서양을 하 도 자리에 올라 온 서양 사립을 보고, 굉장한 관심으로, "아름 사 람을 서키시지 몇층의 선수 그렇 게 수업을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것은 자기 몸을 관공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야 그 분은 물었던 모양 이지요?



(문) 칙칙박사 할아버지 날이 꽤 추 할것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면서 온을 내 드릴까요. 장군 분 이 잘 쉬어 하라 하니까 달리고 달리고 무척나 달린 것이 사립만 보면 그 때도 정말 달리고 달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한을 데리고 있 습니까. 이제 이 주머니에 달고 있 실까요? (서울 포제고 5년 손필영)

(답) 가까이 갔다가는 온 달 나 가. 달하면 죽어. 그러나 장군을 아리고 우리가 하고 다니는 것 처.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님 하신게 아니라 용하실까요. 달고달면서 누는 게 잊었습니까? 새삼스럽게 달 리게 하 되 지요? 영장님 새 수물주신하십니까? (서울 고 기덕)

(답) 수물주신하는게 아니라. 권 령 받은 나쁜 문재 집아서 그래. 장 군이 권 버려야안가?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님 호박잔만있습 니라. 모기는 모야 가릴 수 없는 것 이 잊었습니까? 달도 아니고 때도 아닙니다. 하도 걸으면 코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삼천고 말 수필)

(답) 겨울 속의 물집이나 그렇지. 물집들이 나구 쉬워. 다음에는 물 어머울 문재를 많이 달이. (칙칙 박사)

크르스워드 풀기 도와드립니다

거	제	도	바	연
미	축	양	귀	꽃
주	사	야	행	
신	의	주	봉	화
문	향	잡		장
송	이	수	입	릉
지	도	망	왕	경



○저 자

선생님 "나 어찌서 날마다 지 자를 하니?"

제도 "네, 제가 지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좋아 민편의 제가 오기 전에 제너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빛이 어찌....." (서울 영희고 이 용준)

○저 구

형 "지구는 공 잡이 정있단다." 동생 "고구 공 잡이요?"

질 "그때."

동생 "그런 장교이면 어떻게 하 요?"

○전 화

수이 "우울한 전화 민호를 잃어 버렸으니 어떻게 할다니?"

동생 "우울이론 전화로 불어서 민 호를 끌어 보면 되지요." (서울 포제고 5년 손필영)

○"소 학 생"

선너가 새로 나온 "소학생"을 한 권 작아 주셨습니까.

동생 "아이 좋아하. 이 손희는 언제까지가 잊게 할것어요."

형 "만일 있으면....."

형 "고려로 사달려지." (서울 광화고 최 일희)

# 소학생의 생활



▲수업 어린이들 위하여  
 시는 한철 너의 선생님의 찬양이  
 줄이다. 요점 8월 8일 한철을  
 해서 "소학생을 위한 음악 연주  
 회"를 성립하 였어 우선 한철  
 해서 감자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때 한철의 찬양과 한 사람으로 찬  
 음 부대해 찬양 서 보았습니  
 다. 그 때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9월 12 "소학생"에 내 주신 것은  
 그 일주위의 기념 사진이 되어  
한철의 찬양과 나의 잊지 못할 기  
 념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주신 "소학생" 8월 12로 찬  
 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너의 선  
 생님 찬양해 제정시오. (서울 배  
 화교 6 윤 자영)

▲그 때는 수업을 많이 하셨습니  
 다. 사진이 잘 되지 않아 미안합  
 니다. (기자)

▲지난 10월 5일은 우리들이 신  
 날 같이 고대하던 우리 학교의  
 "체육회" 날이었습니다. 아까 다  
 른 곳의 소학생 동부들보다 작고  
 그 즐거운 가을의 "체육회"에서  
 마음껏 뛰고 달렸을 줄 알리다.  
 나는 그날 꼭 우승을 하려고 마  
 음 먹었던 것이, 그만 돌 부위에  
 발이 채 가지고, "뛰기대기"에서  
 잔잔히 5등을 했습니다. 나는 막  
 슬고 싶었지요. 그러나 라는 "장  
 에를 돌아 경주"에는 달릴 기운  
 을 내가지고 맨 앞을 달려갔습  
 니다. 나는 꼭 기쁘고 자랑스러  
 였습니다. 그 때 그 광경을 "소학  
 생" 편집부에 제정 너의 선생님  
 들께 보이 드리지 못할 것이 미안  
 심합니다. (영광으로 이 제남  
 △순동남을 달리는 모양이 달리는

친합니다. 운동장에 많이 달려  
 제멋대로 소리를 해서 작년에는 글  
 꾸미며 제멋대로 1등을 하심  
 시오. (기자)

▲저는 국민 학교를 졸업하고, 자  
 람 될 것 같지만 학교에 입학했습니  
 다. 선생님 초사이드 의 라프지  
 겠지요? 그런데 저 작문 "나의  
 발견"이 당선되어서 대단히 기  
 르던 중, 상금 3천원과 "물고기  
 쉬운 일" 등 상품을 받고 보니,  
 뭐라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  
 지 열심히 공부하기고 공부한  
 사람이 되어서, 장차 조선 문화  
 에 많이 힘써야겠다는 것 같아 없  
 어요. 그리고 "소학생"을 1호부  
 의 전부 보고 싶을때, 자를 살 수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대전 자영 김 중진)

▲사립 학교에 드립시다. 반갑습  
 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끄러  
 움 이루십시오. "소학생"은 47호  
 부에 좋은 답은 것이 있습니다.  
 (기자)

▲조선의 손 어린이들 위하여  
 축하한 사랑으로 힘써 주시는 이  
 려 선생님 찬양하십시오. 나는  
 "소학생"에 열렬한 축하의 환  
 영합니다. 저의 동부 중에는 미  
 동자가 적습니다라는 것이 힘이  
 미를 해파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지 같은 해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에 첫 작품을 보게오면, "소  
 학생"에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수원 매산정 2 정복철 동  
 위준)

▲그렇게 "소학생"을 사랑해 주시  
 니 감사드립니다. 동요 중에서 "눈"  
 을 이런저런 실었습니다. (기자)



▲이 글은 벌써 끝났지만  
 지난 10월 27일 아침에 서울  
 중대동에 있는 초의 어린이 학교에  
 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오후 교  
 실에 있던 1학년 정복철이 교외  
 에 잡히자고 "하이"하고 울음  
 대를 뛰어 내어 드아가, 멀리 멀  
 어져서 두 발은 엉덩이를 붙여  
 있었요이, 10여 명은 다같이 영원  
 에 영원 상이라고 한다. 이 일과  
 나 슬픈 소식인가? 일만나 부끄  
 른 소식인가? 이런 동부들이 거  
 버서 결국 자공부에 지어서 미  
 람 복음을 실었다는 소식을 가  
 람 들었다. 그래서 수업을 많이  
 해 보내게 될기 힘드라 교를 드  
 려준 지원 것을 알릴 왔다. 그러  
 나 학교 교실에서 동부들이 일어  
 서 한꺼번에 일어나 일어나서 죽  
 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의  
 의 아끼는 어린이의 슬픔을 알릴  
 것도 없거니와 동부들이, 슬픔도  
 할 것이다. 학교 선생님 일할과  
 양하던 어린이를 알을은 중의  
 불쌍한을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  
 았으리라. 이비 불은 정복철이  
 거머져서나 학교에서나 정복철  
 차피고 정복철은 정복철을 하  
 기 리다. (기자)



1948년 7월 5일  
 11월 25일

石 重

韓國兒童文化協會 叢刊

서울 鐘路 21 街 5 號 電話 3970 號 · 3422 號

總發賣 乙酉文化社

小書店 ★ 文章閣 ★ 鐘路



비행기의 내력

①1679년 플랑서 루프스너에가 생각해 낸 비행기. ②이것은 1879년에 안아다가 새를 흉내에서 만든 것이고, ③그것을 기술적으로 발달시킨 독일 버퍼엔드루의



활상기(滑翔機). ④1907년 바이 르 형제가 석유 발동기를 응용해서, 공중을 날르게한 것으로, 저

급 비행기의 조상이다. ⑤2년 후에 루페르오가 만든 것. ⑥은 그 때 영국 과학자를 칭찬한 화아 루안의 비행기다. ⑦1919년 판 우르올이 만든 비행기. ⑧근래의 낙하산이 생겼으며, ⑨는 최신식 비행기의 하나이다.

朝鮮語學會編纂\*

豫約接受

# 조선말 큰 사전

第一卷十月九日부터製本願으로配本

國語淨化에光明 文敎部長 俞億兼氏 推薦辭

朝鮮語學會編纂인 "조선말 큰 사전" 1 나오게 된 것은 우리 敎育界에 큰 光明일뿐 아니라 우리 民族의 榮譽이며 따라서 世界 學界에도 功獻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辭典이 單純한 經路를 밟아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터이지마는 모든 條件이 不利한 오늘날의 形便에도 不顧하고 敢然히 上梓된다는 것은 참으로 慶

事로운 일이라 하겠다. 解放以來 國語 普及은 놀랄만큼 躍하여 머지 않아 우리 民族이 우리 자랑인 한글을 다 깨치게 될을 確信하는 바인데 무엇보다도 바른 맞춤법과 뜻을 잘 익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朝鮮語學會는 國語 研究에 가장 威 있는 學者들이 모인 데로서 이 會에서 編纂한 辭典이라면 아마도 追從을 許諾하지 않을 것이다. 바라건대 이 辭典이 全 六卷을 바빠 完成하여 國語 淨化의 時日과 力을 縮少시켜 주기 바란다.

(사진은 조선말 큰 사전 한 짚을 놓은)



제 1 권 책 값 1,200 원  
(지방 송료 40 원)

發行

## 乙酉文化社

서울市鍾路區鍾路 2 街 (永保빌딩)  
電話 光化門局 3493 · 3870 · 0187